

시정연 2003-PR-24

서울시 강남북 경제격차 현상분석 및 정책대안 연구

2004. 6

연구진

연구책임	이 종 훈	•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연구진	김 상 권	• 한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김 세 종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연구교수
	이 영 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서울시의 산업구조변화와 선업격차	3
1. 서울시의 산업구조	3
2. 구조변화의 원인	6
3. 구별 산업구조의 특징	8
4. 구별 산업구조 격차의 원인	19
5. 사례분석	22
6. 요약 및 시사점	26
III. 고용 및 임금의 강남북 격차와 정책과제	27
1. 강남북 주민의 고용 및 임금현황 비교분석	27
2. 강남북간 고용 및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37
IV. 재산 및 소득의 강남북 격차와 정책과제	50
1. 재산격차	50
2. 소득격차	57
3. 강남북 격차의 발생원인	60
4. 요약 및 정책과제	74
V. 강남북 학생의 인식조사	77
1. 연구목적 및 배경	77
2. 연구방법	80
3. 연구결과	83
4. 결론 및 제언	93
<부록 1> 설문지	97
<부록 2> 라이프스타일 관련 문항 일원변량분석 결과	103
참고문헌	107

I. 서론

- 1970년대 이후 강남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전통적인 기존 시가지인 도심 및 강북지역과 신개발지로 대표되는 강남지역간에 주거환경, 교육문화, 산업경제, 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격차가 심화되었음.
- 1970년대 서울시 행정에 최대과제는 도심부를 포함한 강북지역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강남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인구분산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강북지역, 특히 도심부에 각종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건물높이와 밀도 등을 차등 적용했으며, 강북지역에 밀집해 있던 고등학교, 학원, 공공시설 등을 강남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강남지역은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 제3한강교의 건설 등으로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넓은 도로, 공원, 학교용지의 배분, 구획정리, 단지 계획기법에 의한 주거지 개발이 시도되면서 우수한 주거지로 정착되게 되었음.
 - 1980년대에 들어 강북지역 특히, 도심에서의 시설입지 제한과 건축규제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1980년대 말 강남지역의 8학군 형성, 부동산가격 폭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강북지역 인구분산과 개발억제정책이 강남북간 지역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 1990년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서울시는 강북의 개발을 억제하면서 강남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강북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특정시설(용도)의 입지제한 △개발규제 및 건축제한 △학교·학원·공공기관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시책 등

- 강남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으로는 △부동산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및 공한지세 부과△ 거점개발 및 중대형 건물 유도 △아파트지구 지정 △교통·문화·체육관련 인프라시설의 설치 등
 - 도심집중 억제정책으로 인해 기존 도심부는 낙후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상주인구의 전출로 인한 도심인구의 감소, 도심부 경제활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으나, 강남지역은 양호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업무기능과 첨단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지로 부각되었음.
- 1990년 1월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추진했지만 동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수단의 제도화가 미흡, 후속조치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과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법과 제도의 미비,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르기 못했기 때문임.
- 강남북 균형개발정책의 실패는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맞물려 강남과 강북간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지역간 소득계층간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키고 특정지역 주민에 대한 막연한 반감까지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음.
- 본고에서는 강남북간 산업격차, 고용 및 임금 격차, 재산 및 소득격차, 강남북 학생의식조사 등을 통해 강남북 격차의 실상을 살펴보고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강남북간 산업구조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업구조의 차이가 고용 및 임금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강남북간 재산/소득 격차를 분석하고 강남북간 재산/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마지막으로 강남북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조사를 통해 강남·북 불균형 시정 정책의 방향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함하고자 함.

Ⅱ. 서울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격차

1. 서울시의 산업 구조

(1) 위상

□ 서울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도소매업(80만명)임.

- 도소매업의 뒤를 이어 제조업 (57만명), 사업서비스업 (43만명), 숙박음식업(39만명), 운수업(25만명), 금융보험(22만명), 교육서비스업(21만명) 등이 높은 비중 차지

□ 전국 산업에서의 차지하는 서울산업 비중은 절대 규모 순위와는 거리가 있음.

- 규모순위와는 달리 사업서비스업(50%), 금융보험업(35%), 통신업 (32.8%), 부동산임대업 (32.6%), 도소매업 (30.8%), 등이 높은 비중 차지

<표 2-1> 서울산업 분포 및 비중

(단위: 명, 기준년도: 2002)

산 업	전 국	서 울	비 중
농업 및 임업(01~11)	25,374	321	1.27
어업(14)	9,188	1,280	13.93
광업(10~21)	20,405	593	2.91
제조업(15~46)	3,392,865	571,651	16.8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50)	59,280	10,679	18.01
건설업(45~55)	700,262	208,620	29.79
도매 및 소매업	2,615,733	806,331	30.83
숙박 및 음식업	1,730,334	392,784	22.70
운수업(60~72)	864,336	256,939	29.73
통신업(73)	150,776	49,574	32.88
금융 및 보험업(65~76)	632,618	227,024	35.89
부동산 및 임대업(70~80)	364,519	119,103	32.67
사업서비스업(72~84)	857,183	435,898	50.8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5)	501,618	108,119	21.55
교육 서비스업(89)	1,049,909	215,570	20.5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95)	528,627	136,254	25.7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97)	332,326	93,012	27.9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102)	772,969	171,710	22.21
합 계	14,608,322	3,805,462	26.05

(2) 추세

- 1981-2002년의 서울산업의 종사자수는 1981년 2백3십만명에서, 1996년 4백만명으로 증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3백3십만명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3백8십만명 다시 증가
- 그러나 전국에서의 서울산업 비중은 1981년 36%에서, 1991년 32%, 2002년 26%로 꾸준히 감소
- 서울산업 비중 감소는 서울시 인구집중완화의 결과로 해석 될 수 있지만 수도권지역(인천, 경기도 포함)으로의 인구 집중현상을 감안하면 서울산업의 비중감소는 수도권 확대에 따른 결과
- 수도권은 90년대 들어 서울 순유출, 경기 순유입
 - 1991~2000년간 서울인구 153만명 순유출, 경기지역 233만명 순유입, 수도권 유입은 199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1998년 9천명까지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2년에는 209천명까지 증가

<표 2-2> 종사자 수로 본 서울산업집중 변화

년 도	전 국	서울특별시	비 중
1981	6,603,303	2,378,316	36.0
1986	8,856,648	2,869,444	32.4
1991	11,356,078	3,629,436	32.0
1996	14,006,754	4,045,537	28.9
1999	12,920,289	3,367,652	26.1
2001	14,109,641	3,763,794	26.7
2002	14,608,322	3,805,462	26.0

(3) 특징

- 특징적인 것은 전반적인 서울 산업비중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에서 서울 비중 상승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통신산업의 비중 증가는 독점사업자인 전기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한 결과
- 사업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전문 인력의 서울집중 의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의 비중의 증가는 서울이 행정의 중심으로서 역할이 쇠퇴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

<표 2-3> 1993-2002년간 서울산업 비중 변화

	(단위 %)		
	1993년 A	2002년 B	비중변화 B-A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11.27	18.01	6.75
통신업(64)	29.29	32.88	3.59
사업서비스업(72~75)	47.77	50.85	3.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19.87	21.55	1.69
교육 서비스업(80)	21.68	20.53	-1.1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25.06	22.21	-2.85
어업(05)	17.65	13.93	-3.72
운수업(60~63)	34.00	29.73	-4.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30.58	25.78	-4.8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33.46	27.99	-5.47
숙박 및 음식점업	29.21	22.70	-6.51
금융 및 보험업(65~67)	42.60	35.89	-6.72
농업 및 임업(01~02)	9.58	1.27	-8.31
도매 및 소매업	39.26	30.83	-8.44
제조업(15~37)	28.99	16.85	-12.14
건설업(45~46)	41.94	29.79	-12.15
부동산 및 임대업(70~71)	45.22	32.67	-12.54
광업(10~12)	24.55	2.91	-21.64

- 사업서비스업은 절대규모, 산업비중, 비중변화 등 전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서울산업에서 차지하고 있음 (참조 : 표 2-1, 표 2-2, 표 2-3)
- 사업서비스업 중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14만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11만명) 등이 높은 비중 점유

<표 2-4> 사업서비스업

(단위 : 명, 기준년도 : 2002)

산 업	종업원수	비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19,161	27.3
연구 및 개발업	16,010	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7,740	36.2
사업지원 서비스업	142,987	32.8
합계	435,898	100.00

2. 구조변화의 원인

(1) 산업구조 변화와 일치

□ 서울시 산업구조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 고도화의 결과

- 전체산업에서 제조업비중은 1981년 38%, 1996년 26%, 2002년 23%로 급감, 반면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59%, 1996년 72%, 2002년 76%로 급증

<표 2-5>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천명)

	전산업	농업임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및 서비스업
1981	6603.3	13.5 (0.2)	83.7 (1.2)	2559.3 (38.8)	3946.7 (59.8)
1996	14006.8	23.9 (0.17)	35.8 (0.26)	3748.5 (26.7)	10198.5 (72.8)
2002	14608.3	25.4 (0.17)	20.4 (0.14)	3392.9 (23.2)	11169.7 (76.5)

주 : 괄호속은 산업별구성비로 %임. 자료: 통계청

□ 서울시 산업도 전체산업구조 변화와 유사

- 1981년 제조업비중은 30%, 1996년 20%, 2002년 15%로 급감, 반면에 서비스업은 1981년 69%, 1996년 79%, 2002년 84%로 급증

<표 2-6> 서울 산업구조 변화추이

	전산업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 및 서비스업
1981	2378.3	2 (0.08)	3 (0.1)	722.1 (30.4)	1651.2 (69.4)
1996	4045.5	4.9 (0.12)	3.9 (0.1)	808.5 (20.0)	3228.2 (79.8)
2002	3805.4	1.6 (0.04)	0.5 (0.01)	571.7 (15.0)	3231.6 (84.9)

(단위: 천명)

괄호 속은 산업별 구성비로 %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각 연도를 근거로 추정함.

(2) 상관분석

- 서울산업구조 변화와 우리나라 전체산업구조 변화간의 상관계수는 0.92로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사양산업의 경우 상관계수가 낮음
- 이것은 서울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 상관계수가 높은 산업은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으로 거의 1에 근접,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산업은 농업과 도소매업로 상관계수가 각각 -0.3과 +0.3으로 낮음

<표 2-7> 1993-2002년간의 서울산업과 전산업간의 상관계수

산업명	상관계수
사업서비스업(72~75)	0.997
통신업(64)	0.990
교육 서비스업(80)	0.98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0.97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0.970
운수업(60~63)	0.951
건설업(45~46)	0.95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0.942
어업(05)	0.925
숙박 및 음식업	0.873
제조업(15~37)	0.825
광업(10~12)	0.825
부동산 및 임대업(70~71)	0.8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0.819
금융 및 보험업(65~67)	0.8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0.774
도매 및 소매업	0.308
농업 및 임업(01~02)	-0.367

3. 구(區)별 산업구조 특징

(1) 도소매 (80만명)

- 강남구 (14.21%), 중구 (13.71%), 서초구 (8.25%) 순으로 높은 비중
- 그러나 도봉구, 강북구의 비중은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낮은 비중
- 최상위지역과 최하위지역간의 비중 격차는 12.9%

<표 2-8> 도소매업 분포

(2002년 기준)

순위	지역명	종업원수	비중(%)
1	강남구	114,557	14.21
2	중 구	110,567	13.71
3	서초구	66,087	8.20
4	영등포구	49,910	6.19
5	종로구	49,354	6.12
6	송파구	48,264	5.99
7	용산구	34,104	4.23
8	동대문구	29,191	3.62
9	구로구	26,170	3.25
10	마포구	24,958	3.10
11	강서구	23,908	2.97
12	강동구	22,109	2.74
13	광진구	20,591	2.55
14	양천구	19,411	2.41
15	성동구	18,720	2.32
16	금천구	17,597	2.18
17	동작구	16,816	2.09
18	관악구	16,512	2.05
19	성북구	15,569	1.93
20	서대문구	15,323	1.90
21	중랑구	15,319	1.90
22	은평구	15,044	1.87
23	노원구	14,894	1.85
24	강북구	10,751	1.33
25	도봉구	10,605	1.32
합계		806,331	100.00

(2) 제조업 (57만명)

제조업도 지역별 격차 비교적 큰 업종. 중구(12%), 강남구(10.9%), 금천구(8.8%), 성동구(6.6%) 순으로 높은 비중 유지

반면에 노원(0.96), 은평(0.98), 서대문구(1.05)의 비중은 매우 낮음

- 강남구와 중구에서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본사 혹은 재벌그룹의 사옥 이들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 최상위지역과 최하위지역간의 격차는 11%

<표 2-9> 제조업분포

(2002년 기준)

순위	지역명	종업원수	비중
1	중 구	71,553	12.52
2	강남구	62,386	10.91
3	금천구	50,535	8.84
4	성동구	38,254	6.69
5	영등포구	38,161	6.68
6	종로구	36,032	6.30
7	서초구	31,634	5.53
8	마포구	29,347	5.13
9	구로구	27,638	4.83
10	송파구	21,128	3.70
11	동대문구	17,888	3.13
12	중랑구	17,285	3.02
13	용산구	16,088	2.81
14	광진구	15,305	2.68
15	강서구	13,876	2.43
16	성북구	13,130	2.30
17	관악구	12,447	2.18
18	강동구	10,379	1.82
19	양천구	10,139	1.77
20	동작구	7,833	1.37
21	도봉구	6,761	1.18
22	강북구	6,759	1.18
23	서대문구	5,985	1.05
24	은평구	5,618	0.98
25	노원구	5,490	0.96
		571,651	100.00

(3) 사업서비스업 (43만명)

- 강남구(27.44%), 서초구(13.32%), 영등포구(11.09%), 중구 (10.41%) 순으로 비중이 높음
- 반면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노원구에서의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상위지역과 최하위지역간 격차는 27%

<표 2-10> 사업서비스업 분포

(2002년 기준)

순위	구명	종업원수	비중
1	강남구	119,622	27.44
2	서초구	58,048	13.32
3	영등포구	48,339	11.09
4	중 구	45,369	10.41
5	종로구	26,993	6.19
6	송파구	21,294	4.89
7	마포구	16,334	3.75
8	동작구	12,321	2.83
9	관악구	9,339	2.14
10	구로구	9,225	2.12
11	용산구	9,134	2.10
12	강서구	9,052	2.08
13	광진구	7,379	1.69
14	동대문구	7,325	1.68
15	금천구	5,698	1.31
16	양천구	5,233	1.20
17	강동구	4,768	1.09
18	서대문구	4,306	0.99
19	성동구	4,236	0.97
20	성북구	4,196	0.96
21	노원구	2,027	0.47
22	은평구	1,731	0.40
23	강북구	1,408	0.32
24	중랑구	1,301	0.30
25	도봉구	1,220	0.28
합계		435,898	100.00

(4) 숙박 음식업(39만명)

- 강남구 (11.68%), 중구 (8.09%), 종로구 (6.18%), 서초구 (5.94%), 송파구 (5.29%) 순으로 비중이 높음
- 도봉구 (1.64), 금천구 (1.88), 성동구(2.28)등이 낮은 비중을 보임
- 최상위지역과 최하위지역간의 격차는 10%

<표2-11> 숙박 및 음식점업

(2002년 기준)

순위	구명	종업원	비중
1	강남구	45,859	11.68
2	중 구	31,795	8.09
3	종로구	24,264	6.18
4	서초구	23,342	5.94
5	송파구	20,765	5.29
6	영등포구	20,380	5.19
7	관악구	16,126	4.11
8	강서구	15,209	3.87
9	마포구	15,154	3.86
10	서대문구	15,028	3.83
11	동대문구	14,664	3.73
12	광진구	14,071	3.58
13	강동구	13,777	3.51
14	용산구	13,603	3.46
15	성북구	12,420	3.16
16	노원구	12,030	3.06
17	중랑구	11,081	2.82
18	양천구	10,648	2.71
19	은평구	10,200	2.60
20	구로구	10,104	2.57
21	강북구	9,774	2.49
22	동작구	9,692	2.47
23	성동구	8,938	2.28
24	금천구	7,401	1.88
25	도봉구	6,459	1.64
합계		392,784	100.00

(5) 금융보험업 (22만명)

- 금융기관의 여의도 집중으로 인해 영등포구가 19.52%의 높은 비중을 점유, 뒤를 이어 중구 (19.31%), 강남구 (13.41%), 종로구(8.66%), 서초구 (4.74%)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도봉구, 금천구, 성북구, 성동구, 중랑구 등은 1% 미만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최상위지역과 최하위지역간의 격차는 19.1%

<표 2-12> 금융 및 보험업

(2002년기준)

순위	구명	종업원수	비중
1	영등포구	44,308	19.52
2	중 구	43,832	19.31
3	강남구	30,454	13.41
4	종로구	19,654	8.66
5	서초구	10,766	4.74
6	마포구	9,252	4.08
7	송파구	8,527	3.76
8	서대문구	7,913	3.49
9	동작구	5,045	2.22
10	노원구	4,686	2.06
11	동대문구	4,295	1.89
12	강동구	4,253	1.87
13	강서구	4,176	1.84
14	강북구	3,941	1.74
15	구로구	3,348	1.47
16	양천구	3,236	1.43
17	관악구	2,922	1.29
18	용산구	2,803	1.23
19	은평구	2,590	1.14
20	광진구	2,391	1.05
21	중랑구	2,236	0.98
22	성동구	2,184	0.96
23	성북구	2,020	0.89
24	금천구	1,251	0.55
25	도봉구	941	0.41
합계		227,024	100.00

(6) 교육서비스업(21만명)

- 지역별 격차가 적은 산업
- 상위지역과 하위지역간의 격차는 5.21%
- 노원구 (7%), 강남구 (6.9%), 관악구 (6.36%), 송파구 (5.98%)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천구 (1.79%), 강북구 (2.11%), 중구 (2.17%)등이 낮은 비중을 점유
- 교육서비스업은 주거밀착형 산업이기 때문에 구별 지역의 거주인구 크기에 비례하는 경향

<표 2-13> 교육서비스업

(2002년 기준)

순위	구명	종업원수	비중
1	노원구	15,085	7.00
2	강남구	14,873	6.90
3	관악구	13,702	6.36
4	송파구	12,891	5.98
5	성북구	10,984	5.10
6	종로구	10,785	5.00
7	양천구	9,724	4.51
8	서초구	9,572	4.44
9	강서구	9,221	4.28
10	강동구	8,795	4.08
11	서대문구	8,688	4.03
12	마포구	8,470	3.93
13	광진구	8,362	3.88
14	동작구	8,089	3.75
15	용산구	7,351	3.41
16	은평구	7,017	3.26
17	동대문구	6,887	3.19
18	영등포구	6,861	3.18
19	중랑구	6,724	3.12
20	구로구	6,655	3.09
21	도봉구	6,415	2.98
22	성동구	5,353	2.48
23	중 구	4,669	2.17
24	강북구	4,545	2.11
25	금천구	3,852	1.79
합계		215,570	100.00

<표 2-14>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2000년 기준)

순위	구명	인구수	비중
1	송파구	586,907	6.42
2	노원구	555,010	6.07
3	강남구	492,576	5.39
4	관악구	467,911	5.12
5	강서구	465,597	5.09
6	강동구	439,750	4.81
7	성북구	427,340	4.68
8	양천구	425,976	4.66
9	은평구	408,845	4.47
10	중랑구	406,207	4.44
11	동작구	370,825	4.06
12	구로구	359,582	3.93
13	영등포구	357,371	3.91
14	광진구	350,405	3.83
15	서초구	345,770	3.78
16	동대문구	342,119	3.74
17	마포구	338,722	3.71
18	도봉구	324,798	3.55
19	서대문구	323,553	3.54
20	강북구	317,393	3.47
21	성동구	297,768	3.26
22	금천구	244,406	2.67
23	용산구	211,511	2.31
24	종로구	158,814	1.74
25	중구	121,739	1.33
합 계		9,140,895	100

(8) 지역간 산업성장 격차

- 서울시 경계지역에 위치한 지역일 수록 성장속도가 빠름
- 서울의 서쪽 경계지역에 위치한 양천구와 강서구는 36.76%, 31.25%, 북쪽 지역에 위치한 노원구는 31.25%의 변화율을 각각 기록
- 반면 과거 서울시 중심이었던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등은 마이너스 변화율을 기록, 산업 공동화 현상을 보임
- 서울경계지역의 성장속도가 빠른 이유는 이들 지역이 도심에 비해서 아직까지 개발여지가 많고, 경계지역이 신흥개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임.
-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산업은 건설업
 - 건설업 비중이 서울 전체적으로 50%이상 감소하는 동안, 양천구는 41.4%, 노원구 7.2%의 성장을 보였고, 강서구는 -5.8% 정도의 감소 폭이 낮음
 - 서울시 전체와 비교할 때 양천구는 보건사회복지사업,(45.43) 강서구는 부동산임대서비스업 (116.41%)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냄

<표 2-15> 1996-2002년 구별 산업성장

지역	종업원수 (1996년)	종업원수 (2002년)	비중(C)	비중(D)	증가율
양천구	78674	101358	1.94	2.66	36.96
노원구	76654	94640	1.89	2.49	31.25
강서구	111451	133630	2.75	3.51	27.46
광진구	93984	103022	2.32	2.71	16.53
도봉구	53026	57888	1.31	1.52	16.06
강북구	54895	59261	1.36	1.56	14.76
중랑구	79238	84880	1.96	2.23	13.88
송파구	193105	206722	4.77	5.43	13.81
서대문구	87729	92073	2.17	2.42	11.57
은평구	70297	72347	1.74	1.90	9.41
강동구	99393	101795	2.46	2.67	8.88
동작구	84120	85857	2.08	2.26	8.50
관악구	103187	104744	2.55	2.75	7.91
강남구	523588	517603	12.94	13.60	5.09
금천구	110158	108273	2.72	2.85	4.49
구로구	119809	117603	2.96	3.09	4.35
마포구	155239	149094	3.84	3.92	2.10
성동구	114430	107184	2.83	2.82	-0.42
성북구	94072	87336	2.33	2.30	-1.30
종로구	274407	234011	6.78	6.15	-9.34
용산구	138752	115765	3.43	3.04	-11.30
중구	457736	380263	11.31	9.99	-11.68
서초구	352391	289442	8.71	7.61	-12.68
영등포구	367026	284461	9.07	7.48	-17.61
동대문구	152176	116210	3.76	3.05	-18.82
합계	4045537	3805462	100	100	

비중 (C)= 종업원수(1996년)/ 서울시합계 (1996년)

비중 (D)= 종업원수(2002년)/ 서울시합계 (2002년)

변화율 =(D-C)/C x 100

<표 2-16> 1996-2002년 고성장지역의 산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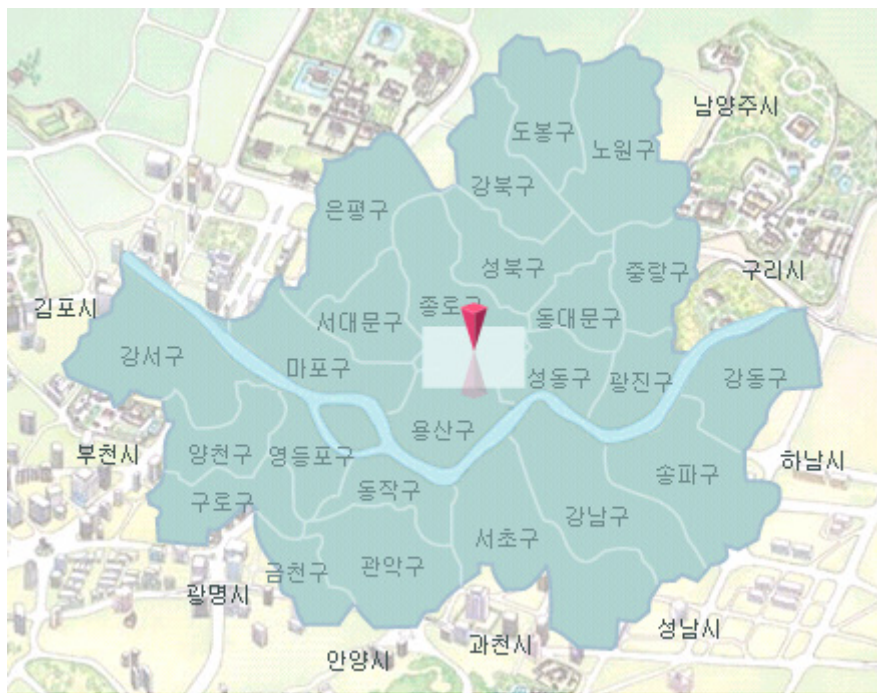
	서울시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광진구
제조업	-24.84	-30.40	-12.78	-37.86	-33.11
전기, 가스, 수도사업	52.92	40.16	43.19	-31.05	61.52
건설업	-50.87	41.46	7.20	-5.86	16.57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	-0.74	-2.17	-22.80	1.51	5.07
숙박, 음식점업	23.83	6.08	19.53	8.70	8.71
운수, 창고, 통신업	11.45	-9.99	3.99	0.49	20.66
금융, 보험업	-15.40	-6.90	-2.93	19.56	-18.70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	58.31	44.46	-3.84	116.41	1.37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6.89	-41.06	-24.74	-54.59	-14.83
교육서비스업	24.44	4.63	13.13	-7.81	12.61
보건, 사회복지사업	37.83	45.43	20.42	32.78	21.56
기타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36.91	19.11	15.38	25.15	32.05

C= 종업원수(1996년)/ 서울시합계 (1996년)

D= 종업원수(2002년)/서울시합계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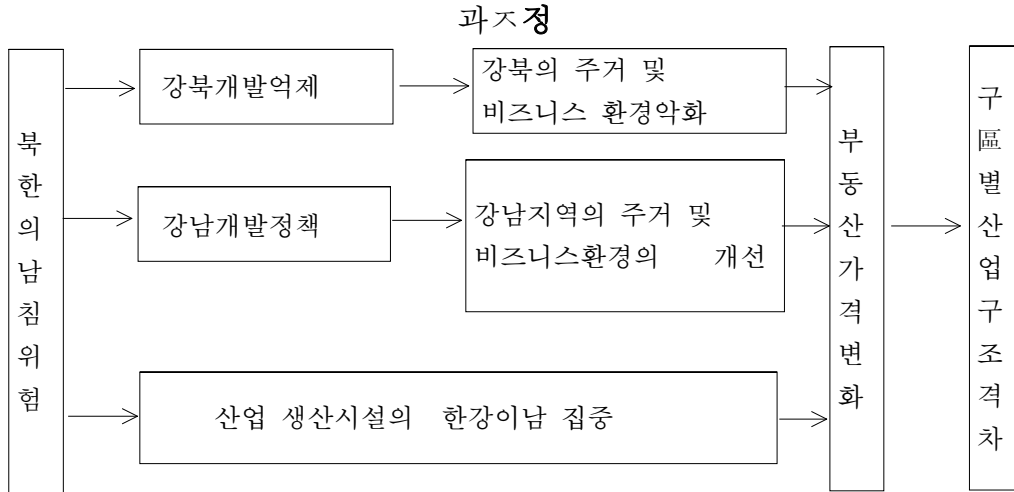
변화율 =(D-C)/C x 100

[그림 1] 서울시 자치구 현황



4. 구별 산업구조 격차의 원인

[그림 2] 서울시 산업 구조의 재편



- 구(區)별 산업구조의 차이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북인구 집중억제정책, 강남개발정책, 그리고 서울이북지역의 산업공동화의 결과
- 강북억제정책은 과거 구도시의 도심주거환경을 악화 시켰고, 강남개발은 강남지역에서의 도시인프라 개선, 주거와 서비스산업에 최적의 입지제공
- 그 결과 강남북간의 주거 및 비즈니스 환경간의 격차 발생

<표 2-17> 강남북 주요 구(區)간의 환경비교

구분		인구 (만명)	대규모 점포 (개소)	근린공원 (개소)	미관지구 (개소)	공연시설 (개소)
강남 지역	A구	54	9	32	1.41	2
	B구	40	6	21	1.39	2
	C구	65	2	38	1.41	2
강북 지역	D구	64	4	25	0.05	0
	E구	47	2	8	0.62	1
	F구	38	1	19	0.92	0

주:대규모 점포(백화점, 도매센터, 대형점, 쇼핑센터), 공연시설(300석 이상의 공연장)

출처 : 주택시장의 불안지속 원인과 해법(삼성경제연구소, 2003.11.5)

- 이는 강남지역에 대한 수요 확대, 과거 서울시 중심지역에 대한 수요정체로 이어져, 지역간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격차를 유발
- 높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은 필터링(filtering process)을 통해 지역별 거주자의 소득 계층화와 산업구조 변화 유발
 - 높은 집값은 낮은 소득계층의 이주를 막고, 비교적인 소득이 안정된 계층의 강남지역 집중
 - 높은 임대료는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의 자연적 퇴출을 촉발, 반면에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정지역 집중화 유도
-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생산시설이 서울이남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 기업들 본사와 서울 거점이 강북지역보다는 거리적으로 가까운 강남지역에 밀집

(1) 강북억제정책

- 강북개발억제정책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의 시대적 산물
- 정책 목적은 북한군의 남침시 강북에 집중된 인구가 일시에 한강을 건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최소화
 - “...영동이나 잠실지구를 개발하여 도시시설을 완비하고 주택을 많이 들어서게 되는 것만으로는 서울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곳으로 이주해 갈 때는 주택분양이나 토지불하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서울시의 인구 증가없이 강북의 조밀 인구를 강남에 소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안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1975년 연두교시)
- 행정지시에 의한 특정시설제한구역설치 (1972)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 도심지역을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설정,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등의 신규시설 설치, 종로구 중구 일대는 카바레, 바, 고등학교 신설 금지

- 입시학원, 결혼식장, 자동차관련업체, 중고차매매업체등의 4대문 밖 이전
- 청계천로 을지로에 각종 전기 전자제품상 1만 2천개 점포 용산구와 원효로로 집단이주

□ 한강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 조치(1975)

- 한강이북지역에 있는 모든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을 금지하여, 택지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

□ '재개발지구지정' (1972-73)

- 중구, 종로구, 을지로, 서울역, 남대문 등 도심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금지.

(2) 강남개발정책

□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이전

- 대법원, 검찰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전력 등의 공공기관 등의 강남이전

□ 대규모 인구유발 시설 건설

- 강남고속터미널, 무역센터, 버스종합터미널

□ 중고등학교의 이전

- 1976년 경기고등학교의 시발로 서울고, 희문중고, 보성고, 숙명여중고, 경기여고 등의 강북의 명문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됨.

□ 지하철 2호선 건설

- 지하철 2호선은 1978년 3월에 착공된 1984년에 완공. 만6년 2개월 이상이 걸린 대공사
- 지하철 2호선은 강남으로의 인구이동 촉진, 1977년 말 서울인구 752만 중 강북인구 489만명, 강남 4개구인구 263만으로 강북과 강남 인구 비율 65:35였으나, 지하철2호선이 개통된 다음해인 1985년의 강북인구는 521만, 강남인구는 442만으로 강북과 강남의 인구비율은 54대 46으로 강남과 강북간의 격차가 축소

(3) 부동산 가격격차

-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사회계층과 산업구조의 차별화를 초래.
- 높은 임대료와 높은 아파트 가격을 감내할 수 있는 산업과 소득계층의 집중.

<표 2-18> 강남북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격차

	1986-1990년 상승기		1999년-2003년 상승기	
	상승률	차이	상승률	차이
강남	80.7%	39.2%	85.1%	53.6%
강북	41.5%		31.6%	

출처:주택시장의 불안지속 원인과 해법(삼성경제연구소, 2003.11.5)

(4) 소득분포

-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사회계층과 지역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평균나이는 38세, 월평균 가구소득은 281만원, 월평균 가수지출은 169만원, 저축액은 84만원, 부동산자산은 1억 1500만원, 금융자산은 3600만원으로 조사
- 금융자산은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이 최저인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구)보다 4.11배 높은 것으로 조사. 특히 동남1권(서초, 강남)에는 최상 계층이 44%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사례분석

(1) 테헤란 밸리

- 테헤란로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역삼역~선릉역~삼성역 사이 4km 가량 되는 왕복 10차선 도로. 주변지역이 업무와 관련된 교통·통신·편의시설이 잘 발달돼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주를 원하는 지역
- 1988년 삼성동 무역센터가 건설되면서 테헤란로에 500~600개의 무역업체들이 입주

- 1990년대 대기업 계열사와 유망중소기업들이 테헤란로에 집중되면서 금융업체들이 입주해 본격화되어 1빌딩 5금융업체 시대가 열림
- 벤처붐이 한창 때였던 1999~2000년에 이 일대 빌딩가에 벤처기업들이 몰리면서 한때 '테헤란밸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벤처기업들의 입주가 붐을 이룸.
- 벤처거품이 꺼진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기록한 2002~2003년에는 대형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가 빈자리를 차지
- 최근에 순수 기술형 벤처업체들은 떠나가고, 게임업체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이 입주
 - 역삼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스타타워에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인 NHN, 플래너스, 모바일 게임업체 그라텍이 입주. 넥슨은 선릉역 일대 4개 빌딩을 차지하고 있고, 엔씨소프트도 늘어나는 인원을 감당하기 위해 3개 빌딩을 차지하고 있고, 네오위즈는 아셈타워의 3개층을 쓰고 있음
 - 영화 관련사들의 입주가 두두러짐. 국내 최대의 영화 투자·배급회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극장체인운영업체 CJ CGV는 강남 역삼역 사거리의 스타타워로 이전. 쇼박스과 메가박스는 스타타워 바로 옆 한솔빌딩에, 싸이더스는 제일생명 네거리로 이전
- 테헤란로의 입주기업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높은 임대료 때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만 입주가 가능
 - 월 임대료는 대로변 기준으로 평당 최소 500만원으로인 테헤란로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잠실, 분당 등보다 많게는 평당 300만원 이상 더 지불하여야 함

(2) 구로공단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가산동 총 60만명 규모로 조성된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

- 1963~1973년까지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경공업위주의 기업이 입주하면서 1970년대 섬유, 봉제, 가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심지
-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1980년대는 조립금속, 종이, 인쇄, 섬유 등 기술집약산업의 중심으로 부상, 1987년에는 근로자가 7만 5천여명,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수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 1990년대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 및 중국으로 입주기업들이 이전하기 시작,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존폐위기에 직면
- 위기극복을 위해 1997년에 구로산업단지 첨단화계획 수립
- 2000년 명칭을 구로공단에서 '서울디지털단지'로 변경하고 첨단기술 기업 유치를 위한 공단개편작업 착수
- 첨단기업입주 비율이 2000년 52.6%에서 2003년 74%로 증가, 입주기업수는 1279개로 1997년에 비해 3배 증가
- 구로공단의 변신과정은 서울시 산업구조가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3) 동대문 시장

- 동대문 시장의 모체는 1905년 대한제국 한성부의 허가를 받아 탄생한 광장시장
 - 광장시장은 광고와 장교사이에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
 - 기와집 245칸, 함석지붕 53칸 규모로 당시 입주점포는 188개
- 1930년대에 들어 면직물의 소비 증가로 포목상이 호황을 누림
- 현재와 같은 상권은 6.25 때 월남한 이북 사람들에 형성
 - 돈이 없던 실향민들은 청계천변에 판자촌을 짓고, 재봉틀 1, 2대를 놓고 의류를 제작
- 섬유수출에 힘입어 1970년 12월 동대문종합시장이 개장

- 동대문종합시장은 A, B, C, D 4개 동과 신관이라 불리는 동대문 쇼핑타운 등 5개 건물로 구성, 1만3000여 가게를 수용, 주로 패션 부자재와 원단을 전문적으로 거래
- 1979년 동평화시장과 제일평화시장이 개설, 1980년 덕인시장, 흥인시장, 남평화시장, 광희시장, 동대문 평화시장이 개장되어 동대문은 전국 최대 의류도매시장으로 부상
- 외환위기로 어려웠던 1998년에 밀리오레 개장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만나는 유통시스템을 도입 경쟁력을 제고
- 동대문의 진화과정은 산업형성에서 초기조건 중요성을 보여줌

(4) 압구정동 영화산업

- 60-70년대는 거의 모든 영화사가 충무로에 몰려있었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영화의 중심이 충무로에서 강남 압구정동으로 이전
 - 강제규필름, 신씨네, 유니코리아픽처스, 다다필름, 튜브픽처스, 쿠에필름, LJ필름, 영화인회의, 허리우드현상소 등 영화제작관련사들이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입지
 - 서울시에 영화산업의 13.2%가 충무로 지역에 있는 반면 33%가 강남구 지역에 집중 (2000년 기준)
- 영화제작업자의 충무로 이탈은 70년대 방송국의 여의도 이전, 1997년 영화진흥공사의 홍릉이전 등으로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
- 강남집중은 고소득층인 감독, 배우 등의 주거지가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
- 영화산업의 강남지역 집중은 지역에 따른 소득계층 분화가 산업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

6. 요약 및 시사점

- 서울시 전체 산업구조변화는 국가적인 산업구조변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그러나 구(區)간 산업 격차는 강북억제정책과 강남개발정책 그리고 한강이북에 생산시설 공동화의 결과
- 강북규제와 강남 개발정책에 의한 강남북간의 격차 → 인구와 사업체의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주 → 강남지역의 부동산 값과 임대료 상승 → 필터링효과에 의해 산업구조와 주민의 계층화
- 도시하부구조의 격차와 강남의 위치경쟁력으로 인해 강남북간의 지역간 격차는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에 도시인프라 개선과 강북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한강이북지역에 생산시설 유치
 - 생산시설들이 남쪽에 집중됨에 따라 강남이 강북보다 선호되고 있음.
-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강북지역의 생산시설 유치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강북지역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외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교육특구설치도 하나의 대안

Ⅲ. 고용 및 임금의 강남·북 격차와 정책과제

1. 강남·북 주민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비교 분석

(1) 고용 및 임금 비교의 의미와 방법

- 서울시 강남북간 고용 및 임금 비교는 지역간 주민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비교하는 것임.
- 거주지역과 주민의 노동시장 성과간에는 쌍방향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거주지역이 노동주민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 노동시장의 성과 차이가 소득 및 부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것이 거주지역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함.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쌍방향 인과관계를 분리·분석하는 (학술적으로는 더 의미가 클만한) 시도를 하려는 것은 아님. 즉,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의 분석 자체에 무게를 두기보다, 현상으로 나타난 격차의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는 '강남북 주민간 경제력의 차이가 서울시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 강남북간 고용 및 임금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서울시 다수 시민은 임금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이므로, 임금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 그리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지역간 경제력의 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될 것임.

- 강남북 주민간 고용 및 임금의 실증적 비교를 위해서는, 개인별 고용 및 임금 현황 조사 자료와 함께 해당 개인이 속한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료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별로 고용 및 임금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가구 조사통계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구의 지역별 분류가 서울시 구별 단위까지 파악되어 공개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
- 그러나 다행히,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한국노동연구원 가구패널조사 (이하 KLIPS)'에서 가구 주소의 구별분류를 포함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 연구가 가능했음.
- KLIPS는 5,000여 가구의 주요 경제사회 변수와 가구 구성원들의 인적속성, 고용, 임금, 소득 등의 변수를 시계열로 추적하여 조사한 panel 자료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1년 기준으로 강남북간 횡단면 분석만 시도하고자 함.
 - 거주지역 변수가 2001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및 임금변화로 인한 거주지역의 변화 등의 분석을 하기 어려움.
- 자료는 구별로 구분될 수 있지만, 개별 구별로 주민의 고용 및 임금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표본 수의 부족으로 시도하지 않을 것임.
 - 전국 5,000가구의 취업자가 5,776명이고 이 중 임금근로자는 66.5%이고, 여기서 다시 서울, OO구로 세분될 경우, 임금근로자 표본의 수 자체가 지나치게 작아지기 때문임.
- 다만, 경제력을 기준으로 볼 때, 임금소득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강남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강북의 경우) 성북구와 중랑구를 전략적인 비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임.
 - 같은 강남(혹은 강북) 지역 중에서도 구별로 매우 상이한 경제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컨대, 강남·서초 지역과 구로·금천 지역은 경제력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임),

- 강남, 강북으로 통틀어 비교할 경우 그 격차가 실제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또한 (비록 표본 수는 크지 않지만) 청년층과 주부여성을 정책의 주요 target으로 보고, 이들의 고용 및 임금수준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함.

(2) 강남·북 주민의 고용수준 및 구조 현황

□ 강남북간 취업률을 보면, 서울시 전체로는 전국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으나, 강남의 취업률이 강북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1.8%p) 다소 높게 나타남.

- 강북의 고용여건이 강남에 비해 다소 열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

<표 3-1> 서울시 강남북간 성별 취업구조 비교

(단위: 명, %)

구분	취업자 수		취업률(성별 고용비중)
전 국	전체	5,776	52.4%
	남성	3,432	(59.4%)
	여성	2,344	(40.6%)
서 울	전체	1,276	52.7%
	남성	758	(59.4%)
	여성	518	(40.6%)
강 남	전체	721	53.5%
	남성	441	(61.2%)
	여성	280	(38.8%)
강 북	전체	555	51.7%
	남성	317	(57.1%)
	여성	238	(42.9%)

주 : 취업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PS, 원자료.

□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성별 취업자 구성비에서 강남북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임. 강남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자 구성비가 38.8%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강북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자 구성비가 42.9%로서 다소 높음.

- 강북의 여성 취업자 구성비는 전국과 서울시의 평균수준인 40.6% 보다도 더 높은 수치임.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구내의 2차노동력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므로, 강북의 여성 취업자 구성비가 더 높은 이유는 강북의 '가구주 소득의 상대적 열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됨.
- 이는 다시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북주민의 가구소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한편,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강남의 경우가 강북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강남이 강북 보다 임금근로자 이외의 사업주 및 자영업주의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 강남지역의 고소득이 고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 기타 사업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3-2>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의 비중

(단위: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합계
서울	62.2	37.8	100.0
강남	59.5	40.5	100.0
강북	66.1	33.9	100.0

자료 : 노동연구원, KLIPS, 원자료.

- 한편 <표 3-3>을 보면, 강남의 취업자가 강북 보다 결코 고학력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서울 전체로는 전국 평균 보다 고학력임을 알 수 있고, 강남·서초의 취업자는 상대적인 고학력인 것을 알 수 있으나,
- 강남지역 대졸 취업자 구성비가 강북지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지역별·학력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구 분	전 국	서울	강남		강북	성북·중랑
				강남·서초		
중졸이하	27.6	22.3	22.8	15.3	21.6	26.4
고 졸	42.9	42.7	44.0	46.0	41.0	35.9
대졸이상	29.5	35.0	33.2	38.7	37.4	37.7
전 학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학력구분에서 무학은 제외함.

- 이는, 강남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강북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연령별 취업구조를 보면, 강남의 경우가 강북보다 prime age worker 그룹이라 할 수 있는 30, 40대 구성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북지역의 경우, 더 늦은 연령까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중이 큰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고연령의 노동력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함.

< 표 3-4 > 지역별·연령계층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구 분	전국	서울	강남		강북	성북·중랑
				강남·서초		
청년층	19.1	21.2	20.5	20.5	22.1	29.4
중년층	55.1	54.0	55.6	51.5	51.8	41.2
장년층	21.6	22.4	21.3	24.2	24.0	26.5
노년층	4.2	2.4	2.6	3.8	2.1	2.9
전 연령층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청년층(15-29세), 중년층(30-49세), 장년층(50-64세), 노년층(65세 이상)

□ 산업별 고용구조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표3-5>참조), 강남북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몇 가지 특기할 사실이 관찰되고 있음.

- 강북의 경우 도소매업 취업자의 구성비가 강남에 비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서, 재래적인 상업종사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 그리고,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 공공행정(공무원), 교육서비스 등의 산업의 취업자 구성비가 크게 나타난 것은 지역주민 직업의 특성이 부각되어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직종별 고용구조를 보면, 강남북간 (설사 강남·서초와 중랑·성북을 비교해 보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강남, 서초 지역에서 고위임직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강북지역에서 서비스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표 3-5> 지역별 산업별 고용구조

(단위: %)

산업별	전 국	서울	강남		강북	
			강남·서초	성북·중랑		
농림어업	7.8	0.9	1.7	0	0	0
광업 및 제조업	21.4	20.0	21.9	0	17.6	7.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4	0.3	0.7	0	0	0
건설업	8.9	9.8	10.2	0	9.3	6.1
도소매 소비자용품	18.6	18.6	15.9	0	22.2	27.3
숙박 및 음식업	8.0	9.7	9.5	20.3	9.9	10.6
운수창고통신업	6.0	7.6	7.4	8.7	7.7	7.6
금융 및 보험업	3.5	4.3	4.3	5.8	4.3	4.5
부동산 임대	7.5	9.6	9.9	23.2	9.1	9.1
공공행정	3.2	2.5	2.2	10.1	2.9	0
교육서비스	6.1	5.8	5.7	11.6	6.1	6.1
보건 및 사회복지	2.4	2.5	2.9	4.3	2.0	1.5
기타공공	6.2	8.3	7.7	15.9	9.0	19.7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노동연구원, KLIPS, 원자료.

<표 3-6> 지역별 직종별 고용구조

(단위: %)

산업별	전 국	서울	강남	강북	
				강남·서초	성북·중랑
고위임직원	1.7	2.5	2.6	3.8	2.3
전문가	6.6	7.4	7.3	9.1	7.5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5	15.6	14.9	18.2	16.5
사무직원	11.6	12.3	12.1	10.6	12.5
서비스근로자	23.0	24.0	22.9	20.5	25.4
농어업숙련근로자	7.3	0.6	1.1	0	0
기능원 및 관련기능공	15.2	15.6	17.9	17.4	12.5
장치 기계조작원	11.3	9.8	9.8	6.8	9.9
단순노무직	10.8	12.2	11.3	13.6	13.3
전직종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노동연구원, KLIPS, 원자료.

(3) 강남·북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비교

□ 이제 임금근로자에 국한하여 볼 때, 강남거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강북에 비해 (약간 높으나)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이는 강남지역의 구별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 강남·서초와 중랑·성북 지역만 비교해 볼 경우, 전자의 경우 후자에 해 약 50% 이상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7> 서울시 지역별 월평균 임금소득 지수 (전국=100)

구 분	임금소득 지수
서울	105
강남구	129
서초구	127
강남평균	107
성북구	81
중랑구	77
강북평균	102

자료 : 노동연구원, KLIPS, 원자료.

□ 전국 평균의 고졸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기준할 때, 서울시 지역별, 성별·학력별 근로자 그룹의 평균임금 수준을 지수화한 것이 <표 3-8>에 요약되어 있음.

- 우선 서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고졸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 공히 전국 수준과 별 차이 없음을 알 수 있음. 강남, 강북 간에도 고졸의 경우 큰 차이가 없으나, 강남, 서초지역과 중랑, 성북지역만을 구분해서 비교해 볼 경우에는 고졸의 경우에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대졸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졸의 경우와는 달리 서울과 전국간, 그리고 강남과 강북간 임금격차가 커지며, 강남 서초와 중랑 성북을 비교할 경우 역시 이 격차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대졸 여성의 경우에는 강남의 대졸여성 임금이 강북의 경우 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기할 만 하며, 이 사실은 강남서초와 중랑 성북을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사실로 확인됨.

<표 3-8> 서울시 학력별·성별 임금지수

		전 국		서울	강남	강북
학 력 별	고졸이하	140		139	142	133
		남성	167	168	170(195)*	163(128)**
		여성	100	102	106(111)	98(94)
	대졸이상	204		222	228	216
		남성	235	257	264(319)	247(239)
		여성	153	158	147(149)	169(206)

주 : *은 강남·서초구, **는 성북·중랑구임.

□ 한편, 강남북 임금근로자의 임금방정식을 각각 추정해 본 결과가 <표 3-9>에 요약되어 있음.

- 강북이 강남의 경우 보다 학력간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성별·연령별 임금격차는 그 반대임을 알 수 있음.
- 강북의 경우 강남의 경우 보다 더 젊은 연령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능력주의 신인사관리에 더 노출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됨.

< 표 3-9 > 강남·북의 임금방정식 추정결과

변수	회귀계수	
	강남	강북
상수항	2.458 (7.55)	3.225 (9.76)
Sex	0.420 (7.23)	0.406 (6.24)
Edu1	-0.382 (-4.68)	-0.403 (-3.93)
Edu2	0.156 (5.18)	0.211 (6.32)
Age	0.101 (6.18)	0.057 (3.23)
Age ²	-0.001 (-5.99)	-0.001 (-2.67)
R ²	0.392	0.428

주: Sex는 여성기준, Edu는 고졸기준, Edu1(중졸이하), Edu2(전문대졸이상).
()은 t값임.

(5) 강남·북간 주부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 비교

- 강남의 경우 주부여성의 취업률은 낮고 청년층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 강남의 주부여성은 (부가소득을 위한) 취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 강북의 경우 청년실업 탈피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

□ 한편, 현재 취업해 있는 주부여성 및 청년들의 직종분포를 보면 (<표 3-11>),

- 전반적으로 강남북간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강남의 경우 강북에 비해 다소 더 나은 직종으로의 분포 사실이 발견되는데,
- 청년의 경우, 강남에서 전문가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온 점, 그리고 주부여성의 경우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강북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 등임.

< 표 3-10 > 서울시 주부여성과 청년층의 취업률 비교

구 분	주부여성	청년층
강 남	40.0%	41.4%
강 북	43.2%	37.3%

자료 : 노동연구원, KLIPS, 원자료.

< 표 3-11 > 서울시 주부여성과 청년층의 직종분포

(단위: %)

산업별	강 남		강 북	
	주부여성	청년층	주부여성	청년층
고위임직원	0.6	2.0	0.8	0
전문가	4.1	11.4	6.0	8.9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5	22.1	10.5	26.6
사무직원	8.7	28.9	9.0	26.6
서비스근로자	34.3	21.5	36.8	22.6
농어업숙련근로자	1.7	0	0	0
기능원 및 관련기능공	19.8	6.0	12.0	8.1
장치 기계조직원	9.3	3.4	6.0	4.0
단순노무직	11.0	4.7	18.8	3.2
합 계	100	100	100	100

자료 : 노동연구원, KLIPS, 원자료.

□ 한편, 주부여성과 청년층의 임금지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표3-12> 참조),

- 주부여성의 경우 강남, 강북을 평균적으로 비교할 경우 강북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으나, 강남 서초와 성북 중랑을 비교해 볼 경우에는 전자가 더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에도 양지역간 임금격차는 매우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남.

< 표 3-12 > 서울시 청년층의 임금지수 (전국=100)

구 분	임금소득지수	
	주부여성	청년층
전 국	100	100
서 울	99	105
강남·서초	101	118
강남평균	95	109
성북·중랑	82	91
강북평균	105	103

자료 : 노동연구원, KLIPS, 원자료.

2. 강남·북간 고용 및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제1절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북 주민의 노동시장 성과(고용여건 및 임금수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임.

- ① 강북주민의 고용률(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
- ② 강북의 경우 가구소득 보완을 위한 여성,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므로, 이들의 고용여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
- ③ 청년의 경우 취업확률, 임금수준 모두 강북의 경우 더 열악하므로, 청년층 고용의 양과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
- ④ 강북주민의 취업자 중 큰 비중의 근로자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재래식 시장 활성화나 상업부문의 창업지원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청와 각 구청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국가(중앙)차원의 다양한 정책들도 강북주민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주민간 격차를 축소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자 함.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청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아님.

- 중앙정부 및 관련 국가기관, 구청과의 행정측면에서의 협력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 고용보험기금 등 정책기금과 중앙재정의 예산사업의 힘을 빌어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함.

□ 특히 서울시청과 강북지역 구청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임.

- '강북의 사정은 구별로 매우 이질적이고 각 구의 사정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구청일 것' 이기 때문에,
- 구청과의 협력하에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청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2) 청년층 고용확대 및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① 청년층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및 지자체의 역할

□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많이 만들어야 내는 것이 중요하나, 이는 민간기업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의 대책이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매우 좁고, 강북지역 주민에 더 큰 혜택이 가는 정책을 디자인하기 매우 어려움.

□ 한편,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하고, 구청별로 지역주민을 직접적인 수혜자로 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지역내 청년들의 실업탈출에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되려면 다음의 2가지 원칙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공공부문에서 사업 확대가 필요했던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임(복지, 환경보호, 공공서비스 등)
- 둘째, 근본적으로 대졸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만족하기 못할 경우 적어도 대졸 청년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부문이어야 함.

-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창출이거나, 지속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고령자·주부에 적합한 직종이고 청년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지않는 일자리창출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임.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일자리를 찾아 연결해주거나 희소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찾아 취업가능성이 높은 청년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지자체가 다른 주체 보다 이러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지자체가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해당 도시의 부족한 인력을 지역내에서 선발·훈련하여 파견해 주는 정책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임.
- 청년 대졸자를 경력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경력직과 유사한 능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 (예: 인턴, 연수 활성화)도 필요하나, 지자체가 주관할 수 있는 성질의 정책은 아님.
- 그러나, 대학에서의 부족한 직업교육을 보충 (가칭, 직업Academy 운영) 하는 등의 인력개발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을 것임.
 - 또한 고졸 청소년의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에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이러한 참여가 업종·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커질 수 있을 것임.
- 이하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② 청년들을 위한 '취업 아카데미'를 대학과의 협력하에 설치·운영

- 방과후, 주말 혹은 방학 중 청년들이 희망직종 관련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특별강좌를 운영할 필요.

-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대학의 대부분이 강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
 - 지자체가 직접 이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내에 청년 직업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대학, 학원 등의 교육기관과 업계로부터 우수강사를 초빙하며, 고용보험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적어도 매칭-펀드로) 지원 받는 방안을 검토.
- 사회수요가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관련분야의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대학내에 설치하되 (예: K대 의상디자인 취업 아카데미) 산업계와 협력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실무교육 중심이어야 하며, 훈련주체가 채용주체가 될 경우 학생(훈련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임.
 - 이때 교재 및 실습 소모품의 비용은 학생부담으로 하고, 강사료와 시설이용료는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분담 방안을 검토할 필요. 실무교육의 특별강좌 개설을 위탁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강사료와 시설이용료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윤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효과적인 교육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할 필요.
- e-learning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봄. 즉, 온-라인 교육은 주중에, 그리고 주말에만 오프-라인 교육을 할 경우, 학교 공간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방학에 집중적인 프로그램 운영 (1일 5시간 이상의 압축적인 직업교육) 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교육이수 후 지자체, 학교, 업계 공동개발의 민간자격을 발급할 경우, 청년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③ 기업주도의 업종별·지역별 공동 직업훈련을 적극 유도

- 고졸 청년의 경우, 대기업 생산직 중 고임금 일자리도 대부분 전문대졸이 차지하고 있어 고졸자가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
 - 반면에, 중소기업 단순사무직, 영업직, 생산직은 취업할 수 있으나,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있음.
-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려면 추가적인 질 높은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기업이 직접 주도하는 업종별 공동훈련을 지역별로 활성화하되, 여기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강북지역의 청년취업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
 - 기업이 직접 수행할 경우, 기업이 원하는 직능이 무엇인지(skill 수요의 내용)에 대해 훈련기관이 잘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정보의 불완전성)를 해결할 수 있음.
 - 수료생의 취업실적 등의 지표를 잣대로 훈련기관을 평가한다고 해도 평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음.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기에는 기술진보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사실 때문임.
 - 피훈련생 입장에서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움 그 자체라기보다) 취업이므로 노동(스킬)수요 주체인 기업이 훈련주체로 나서게 될 경우, 훈련의 호응도가 높아져서 훈련규모도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비용부담의 유인도 더 높아질 것
- 기업이 주도하되, 업종별 특성화와 지역성 강화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
 - 산업특성화 개념이 없는 지역중심의 네트워크는 목표가 없는 전략이고, 지역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중앙집권적 접근의) 산업특성화 전략은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이 때, 업종·지역 결합의 부문(cell)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직업 훈련 활성화의 핵심요소
- 평생교육의 場은 지역성(인근 기업과의 연계성), 지리적 접근성 (훈련생의 교통편의) 등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는 곳이어야 하며, 미국의 Community College가 대표적인 예임.
- 지역내 특화된 업종의 공동훈련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하며, 지역별 기업 조직인 상공회의소가 해당지역 특화산업의 업종별 협회와 파트너가 됨.
 - 지자체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
- 업종별 협회조직은 산업특수적 직능 (industry-specific skill) 에 대한 정보, 훈련시설관리, 훈련계획 수립, 교사지원 등 기획 및 인프라 지원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 지역조직인 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을 동원하여 현장교사 지원, 훈련생 모집 및 훈련수요 파악 등 현장업무로 업무 차별화.
 - 지자체는 상공회의소의 훈련생 모집, 훈련수요 파악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원조달에서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

④ 지역내 특화된 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

- 지역내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실업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 지자체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은 인력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차원에서 적극 연구해 볼 필요.
- 첫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영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성패의 열쇠가 되며, 특히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서비스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함.
 - 예컨대, 고도로 유연하고 스피디한 생산의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 패션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대문시장을 위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산업성장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임.

□ 둘째, 용산 전자상가 등 흩어져 있는 생산자들을 하나로 묶어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중소기업자들의 브랜드 파워 및 마케팅 능력 취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

- 개별업자의 불성실한 생산 등의 도덕적 해이는 상품 바코드 관리와 공동 브랜드에서의 축출 등의 방법으로 감독과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 공동이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의 조성을 지원함.

- 지역내 중소기업자들에게 공히 필요한 생산요소를 공유할 목적으로 업체들이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matching-fund 방식의 자금지원 혹은 저리의 장기대출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

(3) 주부여성 및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및 인력개발 대책

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 고학력의 청년들과는 달리 주부여성 및 고령자의 경우에는,

- 첫째, 가구내 2차 노동력이므로 안정적 고임금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의 기회를 꾸준히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 둘째, 이들의 일자리는 저숙련의 서비스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알선대책이 요구되며,

- 셋째, 스킬의 수준이 높지는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스킬에 대한 직업훈련이 실시될 경우 이들의 일자리 찾기와 유지에 있어 더 유리해질 것임.

□ 현실적으로 주부여성과 고령자들은 비정규직 고용에 머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클 것임. 그런데 비정규직은 정규직(특히 조직근로자)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성(job security)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직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안정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즉,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의 강화도 취약계층 보호와 근로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첫째, 지역내 어떠한 가구에서 2차 노동력의 임금소득 창출이 필요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지, 즉 취약계층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지자체임.
- 둘째, 지자체는 단순 서비스 직종 노동수요를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주체임과 동시에, 지역내 구인수요를 찾아 직업알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임. 단순 서비스 직종 수요업체는 (제조업과는 달리) 업종단위의 활동 보다는 지역단위의 활동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임.
- 셋째, 단순 서비스 직종의 훈련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음. 훈련수요 파악, 훈련생 모집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훈련생의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시설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도 필요.

② low-skill 서비스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은 일반 세출회계에 의한 예산지원으로 지자체의 주관하에 추진되는 것이 주종이나, 영세성, 전문성 취약, 비효과성의 문제로 비판 받고 있음.
- 훈련실시 기관도 원칙 없이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사업주관 주체인 지자체가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직업소개 포함)에 전문성이 없음.
- 이로 인한, 훈련의 질 저하와 직업훈련과 직업소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취업률이 20%대에도 못미침.
- 한편,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취약계층 훈련도 아직 시행착오 단계에 머물고 있음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

- 훈련생 유인에 어려움: 지역조사 준비가 부족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의 협조 또한 미흡, 취업 혹은 자격증 취득과의 연계가 부족
 - 훈련의 질 미흡: 시간강사 활용, 현장 요구내용과의 괴리, 획일적 훈련시간 부여로 직종에 따라 과다훈련 혹은 과소훈련.
 - 취업률 저조: 장년 부녀자 수료후 취업률 저조, 상담 및 구인처 개발 노력 부족
- 단순 서비스 직종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 하더라도 실업기간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파출부, 간병인 등의 직종에서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인력의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폭 넓은 취업기회의 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임.
-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러한 직업훈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원천적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 첫째, 훈련서비스 수혜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해주기 위해 가상(cyber)교육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질지 모르나, 육아 및 가사 부담으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은 주부여성층의 훈련을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둘째, 훈련소비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원격화상훈련, 더 나아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훈련 등의 다양한 훈련방법을 고안할 필요. 훈련생의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훈련방법들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통한 훈련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필요. 예컨대, 가상교육의 약점인 훈련성과 평가를 위해 정기적인 집체(集體)교육을 병행하되, 집체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고객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화상 및 이동훈련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③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자격개발 및 적극적인 직업알선

- 단순 서비스 직종에서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새로운 자격증의 개발이 시급함. 중앙차원의 국가자격이 개발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간자격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시급.
 - 단순직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스킬의 성격이 일반적 (general)이고 기업특수적(firm-specific)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자격증의 존재 필요성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 문제는 단기간의 훈련이면 습득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도 과연 자격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아무리 단순직이라 하더라도 자격을 통한 직업능력인증은 취업여성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이므로, '떠돌이 직장' 신세 취약계층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장치가 될 것임.
 - 예컨대, 간병인, 산후조리원, 베이비-시터 등의 여성특화직종의 경우에도, 단기간의 교육으로 응급시의 처치방식 등의 간단한 의학상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필기·실기 검정을 통해 자격으로 인증하는 것은 이들을 채용할 사람이나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이는 이러한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직업소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공공파견사업'을 수행할 필요. 여기서 직업훈련도 동시에 수행할 경우 더 효과적일 것임.
 - 훈련은 규모의 경제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영세한 규모의 파견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음.
 - 훈련 수수료 후 공단이 직접 직업소개 및 파견 서비스까지 담당할 경우, 규모의 경제, 공익성 추구 등의 이유로 엄청나게 저렴한 수수료만 파견근로자에 부과될 가능성.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큰 분야.

④ 지역별 '고령자 인력개발 센터' 설립 및 운영

□ 고령자에게 일자리 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음. 소득 창출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일을 통해 인생의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이분들의 지식을 이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됨.

□ 고령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로 '고령자인력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 등 지역노인복지센터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력센터'에서는 첫째,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의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임. 특히 전문지식을 보유한 분들의 경우 사회적 수요도 매우 클 것이고, 자원봉사자 신청자를 확보하고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정부 예산으로 지급할 필요.

- 교육, 복지, 기업컨설팅, 안전서비스, 문화재관리, 지가 및 기업평가, 통역, 고서연구, 조리 등 특히 유아보육, 산모간호 등 여성고령자에게 적합

□ 둘째, 저소득층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할 필요.

- 환경, 안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이 사업을 전개할 경우 필요한 공공서비스 사업의 확충과 고령자 일자리 제공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예: 환경감시, 상수원보호 및 하천 감시, 교통량조사, 공원관리 등 공공서비스 분야)

⑤ 적극적 보육정책을 통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 주부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를 갖는 육아부담에 대한 지원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다수의 전문직 직장여성이 직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사장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 저소득 계층의 주부인력이 가구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 빈곤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물론 그동안 공공탁아소 건립, 기업의 탁아소 설치·운영의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
- 따라서 충분한 공공 탁아소 설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소득층 주부부터 '탁아 바우처' 제도를 지자체가 주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족한 공공탁아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민간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또한 바우처의 한도액을 소득별로 차등화할 경우 소득분배적 기능도 가질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 예산 혹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정 지원하되,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제일 많은 지자체가 주관하여 추진.

IV. 재산 및 소득의 강남북 격차와 정책과제

1. 재산 격차

- 강남북간 재산 격차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용변수(proxy variable)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
 - 지역별 재산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한국노동연구원 가구패널조사' 데이터가 있음.
 - 가계의 재산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아파트가격, 재산세 부과실적 등을 들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강남북간 재산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각 구별 아파트 가격 및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강남권 및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강남북간 아파트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국민은행의 조사(2004, 6. 28)에 따르면 세대수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강남구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2,249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의 1.93배, 전국 평균의 3.68배에 달하고 있음.
 -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강남권은 평당 1,560만원에서 2,249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을 34%에서 93% 상회하고 있음.
 -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구와 가장 낮은 도봉구를 비교할 경우, 강남구의 아파트 시세는 3.6배나 높은 실정임.
 - 전세가격 역시 강남권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강서권에서는 양천구, 강북권에서는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등이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 서울시의 권역을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북권(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로 구분하였음.

<표 4-1> 권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

권역	구별	평당 매매가격(만원)		평당 전세가격(만원)	
		가격	지수(서울=100)	가격	지수(서울=100)
강남권	강남구	2249	193	709	149
	서초구	1809	156	643	135
	송파구	2020	174	484	102
	강동구	1560	134	465	98
강서권	강서구	862	74	387	81
	관악구	818	70	451	95
	구로구	736	63	375	79
	동작구	957	82	486	102
	양천구	1248	107	524	110
	금천구	693	60	317	67
	영등포구	991	85	462	97
강북권	광진구	1156	99	551	116
	성동구	1025	88	512	108
	용산구	1415	122	601	126
	마포구	1013	87	509	107
	서대문구	793	68	460	97
	은평구	697	60	388	82
	종로구	878	75	463	97
	중구	1101	95	571	120
	성북구	768	66	424	89
	동대문구	832	72	431	91
	중랑구	685	59	381	80
	강북구	677	58	355	75
	노원구	669	58	390	82
	도봉구	623	54	364	76
서울평균	-	1163	100	476	100
전국평균	-	610	-	299	-

자료 : 국민은행.

□ 강남북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음.

-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조사사료에 따르면 1990년 5월과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강남 강북 아파트 동별 아파트 평당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2004년 5월 현재 강남권에서 평당 최고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저층아파트 13평형으로 평당 6,654만으로 조사되었음.

· 1990년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가 평당 1050만원에서 15년 후에 6.3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강북지역의 최저가격은 도봉구 쌍문동 23평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인 315만원에 비하여 21.1배에 달하는 금액

· 강북지역의 최저가 아파트는 1990년 당시 평당 269만원에서 2004년 315만원으로 상승하여 강남권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4-2> 강남-강북 아파트 평당 가격차 추이

(단위 : 만원)

조사시점	구분	지역	평형	매매가격 (평균)	평당가격	가격차이
2004.5.17	최고	강남구 대치동	13	86,500	6,654	
	최저	도봉구 쌍문동	23	7,250	315	21.1
1990.5.22	최고	강남구 압구정동	50	52,500	1,050	
	최저	노원구 중계동	18	4,850	269	3.90

자료 : 부동산뱅크

- 한편, 동별(洞別) 평당 매매가격을 보면, 2004년 5월 현재 송파구 잠실동이 평당 3,120만원으로 강북권 최저가격인 중구 회현동의 평당 511만원으로 6.1배에 달하였음.

· 1990년 5월 기준으로 강남권 압구정동이 평당 76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북권에서는 용산구 용산동이 312만원으로 최저가를 형성하여 강남 강북 아파트 가격차이는 2.46배에 불과하였음.

- 강남북 아파트 평당 매매가 및 동별 매매가 변동추이를 보면 강남지역은 상승폭이 두드러진 반면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가격상승폭이 적었음을 알 수 있음.

<표 4-3> 강남-강북 동별(洞別) 아파트 평당 가격차 추이
(단위 : 만원)

조사시점	구분	지역	평형	매매가격 (평균)	평당가격	가격차이
2004.5.17	최고	송파구 잠실동	-	-	3,120	
	최저	중구 회현동	-	-	511.2	6.10
1990.5.22	최고	강남구 압구정동	-	-	767.2	
	최저	용산구 용산동	-	-	312.5	2.46

자료 : 부동산뱅크

□ 재산세 부과 역시 강남북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강남권 재산세 부과실적(2002년)은 서울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32.7%를 차지하고 있음.
- 강서권은 재산세 부과실적은 서울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북권은 42.6%를 차지하고 있음.

☞ 재산세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로서 종전에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으며 기계장비는 1995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합토지세의 경우 강남권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강남권의 종합토지세 부과액의 점유율은 재산세 부과액보다 많은 38.0%를 차지하고 있음.
- 강서권은 재산세 부과액보다 낮은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북권은 재산세 부과액과 비슷한 43.0%를 차지하고 있음.

☞ 종합토지세는 비생산적인 목적의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전에 필지별로 과세하던 것을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를 종합하여 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표 4-4> 강남북 지역 재산세 부과실적

권역	구별	재산세(백만원)		종합토지세(백만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강남권	강남구	31,095	14.6	84,825	18.2
	서초구	18,857	8.7	42,870	9.2
	송파구	13,086	6.1	33,605	7.2
	강동구	7,091	3.3	15,987	3.4
	소 계	70,129	32.7	177,287	38.0
강서권	강서구	10,905	5.1	13,805	3.0
	관악구	6,744	3.2	9,518	2.0
	구로구	6,431	3.0	10,445	2.2
	동작구	5,945	2.8	9,713	2.1
	양천구	7,417	3.5	10,497	2.3
	금천구	3,821	1.8	7,622	1.6
	영등포구	11,362	5.3	27,202	5.8
	소 계	52,625	24.7	88,802	19.0
강북권	광진구	6,474	3.0	10,744	2.3
	성동구	5,237	2.5	11,979	2.6
	용산구	7,655	3.6	13,684	2.9
	마포구	6,839	3.2	13,001	2.8
	서대문구	5,929	2.8	8,906	1.9
	은평구	5,000	2.3	9,357	2.0
	종로구	8,339	3.9	27,139	5.8
	중구	10,256	4.8	48,629	10.4
	성북구	6,868	3.2	11,712	2.5
	동대문구	5,832	2.7	12,841	2.8
	중랑구	4,862	2.3	7,704	1.6
	강북구	4,192	2.0	8,281	1.8
	노원구	7,890	3.7	9,665	2.1
	도봉구	4,698	2.2	6,336	1.4
	소 계	90,070	42.6	199,979	43.0
서울	-	212,824	100.0	466,068	100.0

자료 : 서울통계연보(2003).

□ 각 구별 가구수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액을 살펴본 결과 가구수 비중에 대하여 강남권의 재산세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강남권의 가구수 비율은 전체 서울시 가구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32.7%를 점유하고 있음.

· 이는 강남권이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강서권의 가구수 비율은 29.2%인데 반하여 재산세의 비율은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북권은 가구수 비중은 49.9%, 재산세 비율은 42.6%를 차지하고 있음.

· 강서권과 강북권은 모두 가구수 비율에 비하여 재산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강남권과 재산 면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재산세 부과액을 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재산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강남북간의 재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 강남권의 경우 강남구의 가구당 재산세 부과액은 서울시 전체 평균의 2.6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초구 역시 2.44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송파구나 강동구는 서울시 평균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강서권의 경우 강서구와 영등포구만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에서는 서울시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강북권의 경우 대형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가 각각 서울시 평균의 3.65배, 2.15배, 1.53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자치구는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표 4-5> 가구당 재산세 부과액

권역	구별	재산세(백만원)		가구당 재산세(천원)	
		금액	가구수	금액	지수 (서울평균=100)
강남권	강남구	31,095	151,920	205	267
	서초구	18,857	99,098	190	244
	송파구	13,086	172,639	76	97
	강동구	7,091	145,443	49	63
	비율	32.7	20.9	-	-
강서권	강서구	10,905	137,984	79	101
	관악구	6,744	134,031	50	64
	구로구	6,431	115,380	56	72
	동작구	5,945	96,900	61	78
	양천구	7,417	125,677	59	76
	금천구	3,821	76,171	50	64
	영등포구	11,362	109,916	103	132
	비율	24.7	29.2	-	-
강북권	광진구	6,474	109,924	59	76
	성동구	5,237	87,930	60	77
	용산구	7,655	64,612	119	153
	마포구	6,839	121,427	56	72
	서대문구	5,929	86,576	68	87
	은평구	5,000	117,648	42	54
	종로구	8,339	49,780	168	215
	중구	10,256	36,036	285	365
	성북구	6,868	110,753	62	79
	동대문구	5,832	96,048	61	78
	중랑구	4,862	115,759	42	54
	강북구	4,192	105,273	40	51
	노원구	7,890	158,447	50	64
	도봉구	4,698	99,403	47	60
	소계	42.6	49.9	-	-
서울	-	212,824	2,724,775	78	100

자료 : 서울통계연보(2003).

2. 소득 격차

□ (가구당 소득) : 국민은행이 조사 발표한 2003년 주택금융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8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강북지역은 288만원, 강남지역은 307만원으로 나타남.

- 강북지역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가 14.4%, 250만원 미만이 29.8%, 350만원 미만이 16.1%, 500만원 이상은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강남지역은 가구당 소득이 500만원 미만까지의 비율은 강북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500만원 이상의 비율은 강북지역에 비하여 4.6%p 높게 나타나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강남지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7만원으로 강북권 288만원에 비하여 19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구당 월평균 소득규모는 사전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여 강남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이는 표본의 차이에서 오는 편이(bias)일 가능성이 큰데 강남지역의 무응답층이 8%로 강북지역에 비하여 2배나 높게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4-6>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만원, %)

구분	150만원 이하	250만원 미만	35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만원)
서울	13.5	28.3	27.3	15.0	10.0	5.8	297.5
강북	14.4	29.8	28.4	16.1	7.7	3.7	288.4
강남	12.6	26.9	26.2	14.0	12.3	8.0	307.0
차이 (강북-강남)	1.8	2.9	2.2	2.1	-4.6	-4.3	-18.6

자료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조사, 2003

□ (금융자산) :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강남북 격차는 약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음.

- 강북지역의 경우 금융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19.6%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3천만원 이하는 15.3%, 5천만원 이하는 7.6%, 1억초과는 15.2%를 차지하고 있음.

- 강남지역의 경우 금융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11.2%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23.4%로 강북에 비하여 6%p 낮았으며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강북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강북지역의 평균 금융자산 규모는 8,829만원, 강남지역은 9,041만원으로 나타나 강남북간 차이는 212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금융자산 역시 강남북간 사전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이는 높은 무응답층의 비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강남지역의 무응답층 비율이 30.8%로 강북지역의 18.5%에 비하여 12.3%p 높게 조사되었음.

<표 4-7> 금융자산 보유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1천만원 이하 ¹⁾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무응답	평균 (만원)
서울	26.1	12.0	10.1	10.6	16.1	25.1	8,934
강북	29.4	15.3	7.6	14.1	15.2	18.5	8,829
강남	23.4	9.4	12.1	7.5	16.8	30.8	9,041
차이 (강북-강남)	6.0	-3.3	-4.5	6.6	-1.6	-12.3	-212

1) 금융자산 없음도 포함

자료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조사, 2003.

□ (금융부채) : 강남북 부채현황에 대한 강남북 격차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비하여 규모는 작은 편이며 강남북간 격차는 277만원으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강북지역의 경우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25.0%를 포함하여 부채규모가 1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3천만원 이하 13.0%, 5천만원 이하 16.3%, 1억원 이하는 10.9%, 1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0%로 조사되었음.
- 강남지역의 경우 부채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 19.6%를 포함하여 부채규모가 1천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21.8%로 조사되었으며 3천만원 이하는 13.1%, 5천만원 이하 12.1%, 1억원 이하 11.2%,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강북지역에 비하여 0.9%p 낮은 5.6%로 조사되었음.
- 서울시 전체의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는 4,96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강북지역의 경우 4,831만원, 강남지역은 5,10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차이는 277만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4-8> 부채보유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1천만원 이하 ¹⁾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무응답	평균 (만원)
서울	27.1	13.0	14.1	11.1	6.0	28.6	4,966
강북	32.6	13.0	16.3	10.9	6.5	20.7	4,831
강남	21.8	13.1	12.1	11.2	5.6	35.5	5,108
차이 (북-남)	10.8	-0.1	4.2	-0.2	0.9	-14.8	-277

1) '부채 없음'도 포함

자료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조사, 2003.

□ (내집마련 기간) : 결혼 후 주택마련에 소요된 기간은 서울 평균이 6.5년, 강북지역이 7.1년, 강남지역이 5.9년으로 조사되었음.

- 강북지역의 경우 2년 미만 안에 내집마련한 경우는 21.8%, 4년에서 10년 미만은 52%에 달하고 있음.
- 강남지역의 경우 결혼 후 6년 미만 안에 내집마련한 경우 60%를 상회하고 있어 강남지역에 거주자가 결혼 후 조기에 내집마련에 성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 가지 의문은 앞서 분석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강남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강남지역의 내집마련 기간이 강북지역에 비하여 짧은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임.
 - 부채규모 역시 강남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융자산 규모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는 표본조사의 한계로 강남지역의 무응답층이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4-9> 결혼 후 주택마련 소요기간

(단위 : %, 년)

	0년	2년 미만	4년 미만	6년 미만	8년미만	10년 미만	평균 (년)
서울	12.6	10.0	17.2	15.8	10.7	11.4	6.5
강북	13.5	8.3	14.5	13.0	14.0	10.4	7.1
강남	11.9	11.4	19.6	18.3	7.8	12.3	5.9
격차	2.6	-2.9	-4.9	-5.3	6.2	-2.3	1.2

주 : 10년 이상의 비율은 별도로 나타내지 않았음.

자료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조사, 2003.

3. 강남북 격차의 발생원인

□ 지역간 격차는 그 유형과 영향요인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격차 분석은 시간과 공간차원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정상적 격차 : 장기균형 상태에 도달한 후에도 존재하는 격차
- 조정적 격차 : 장기균형에 도달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격차
- 정책적 격차 : 지역개발 등 정책수단 운영이 최적상태에 이르지 못해 발생하는 격차
- 구조적 격차 :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수단 등의 이동성 편향에 의해 발생하는 격차

□ 지역격차의 분석 대상

- 경제적 격차는 자본/노동/기술차이, 집적경제, 규모의 경제 차이 등으로 지역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 지역총생산, 경제적 기반, 경제성장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공간격차는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시설, 문화/의료/교육시설 등의 지역간 생활환경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주거환경 : 1인당 주거면적, 노후주택비율, 아파트 평당가격 등
 - 산업경제 :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율, 순고용밀도(종사자수/시가화면적), 재정자립도, 대형승용차 등록 비율
 - 기반시설 : 1인당 공원면적, 주차장 확보율, 정보화지수(인프라+정보이용+정보화지원지수/3)
 - 문화/의료/교육시설 : 1인당 문화시설수, 10만명당 병원수, 초중고 노후학교 건물 비율, 전문대졸 이상 인구비율

□ (예산 및 재정자립도) : 각 자치구별 예산 규모 및 재정자립도는 강남북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강남권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자치구의 예산 규모 역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임.

- 각 자치구별 예산규모 면에서 강남북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예산규모는 강남구가 서울시 평균의 1.74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규모가 작은 금천구에 비하여 2.43배 높은 편이며 서초구, 송파구 역시 서울시 평균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강서권에서는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구와 성북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강남북간 재산 및 소득의 격차는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쳐 대체로 강남권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 강북권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각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54.5%를 초과하는 자치구는 강남권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이며 강서권에서는 양천구와 영등포구, 강북권에서는 종로구와 중구뿐임.

· 강북권 지역 대부분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0> 각 자치구별 재정 현황(2002년)

권역	구별	예산규모(백만원)		재정자립도(%)	
		금액	점유율(%)	재정자립도	격차(%p)
강남권	강남구	330,444	1.74	89.4	34.9
	서초구	205,521	1.08	92.8	38.3
	송파구	197,622	1.04	70.1	15.6
	강동구	184,517	0.97	45.3	-9.2
강서권	강서구	225,320	1.18	47.2	-7.3
	관악구	195,739	1.03	34.0	-20.5
	구로구	170,768	0.90	46.0	-8.5
	동작구	171,053	0.90	43.2	-11.3
	양천구	164,305	0.86	62.1	7.6
	금천구	136,008	0.71	40.9	-13.6
	영등포구	206,558	1.09	83.6	29.1
강북권	광진구	145,165	0.91	40.6	-13.9
	성동구	168,579	0.89	42.2	-12.3
	용산구	173,551	0.91	53.8	-0.7
	마포구	210,384	1.11	46.1	-8.4
	서대문구	170,246	0.89	43.6	-10.9
	은평구	181,331	0.95	32.6	-21.9
	종로구	176,114	0.93	76.5	22.0
	중구	202,008	1.06	93.7	39.2
	성북구	199,106	1.05	45.7	-8.8
	동대문구	221,203	1.16	39.9	-14.6
	중랑구	166,206	0.87	33.5	-21.0
	강북구	161,413	0.85	32.8	-21.7
	노원구	224,518	1.18	34.8	-19.7
	도봉구	169,855	0.89	39.0	-15.5
자치구	평균 ¹⁾	190,301	1.00	54.5	-
본 청	-	13,773,641	-	94.7	-

1) 자치구 예산 총액을 자치구수로 나누어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값
 자료 : 서울통계연보(2003).

-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에서 강남권은 25.5%, 강서권은 28.8%, 강북권은 45.7%를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과 가구수 비율을 살펴보면 강남북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강남권의 가구수 비율은 전체 서울시 가구의 20.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은 25.5%를 차지하고 있어 가구수에 비하여 자동차 등록대수의 비중이 높은 편임.
 - 강서권의 전체 가구수 비율은 29.2%인데 반하여 자동차 등록대수의 비율은 28.8%를 차지하고 있어 가구수 비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강북권은 경우 전체 가구수 비중은 49.9%인데 반하여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은 45.7%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동차 등록 가운데 자가용의 등록비율을 살펴보면 강남지역의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강남권 지역의 자가용 등록대수 비율은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보다 높은 26.7%를 차지하여 가구수 비율 20.9%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전체 등록 자동차 중에서 자가용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 강서권 지역의 자가용 등록대수 비율은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보다 약간 낮은 28.3%를 차지하여 가구수 비율 29.2%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강북권 지역의 자가용 등록비율은 45%를 차지하여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 45.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북권 지역의 가구수 비율에 비해서는 더욱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4-11> 자치구별 자동차 등록현황(2002년)

권역	구별	자동차등록		자가용 등록	
		대수	비율(%)	자가용	비율(%)
강남권	강남구	213,824	-	170,509	-
	서초구	154,023	-	118,228	-
	송파구	192,269	-	143,383	-
	강동구	126,597	-	90,999	-
	소 계	686,713	25.5	523,119	26.7
강서권	강서구	142,138	-	100,980	-
	관악구	110,009	-	80,600	-
	구로구	110,678	-	75,154	-
	동작구	87,871	-	68,106	-
	양천구	129,512	-	95,972	-
	금천구	68,035	-	44,505	-
	영등포구	127,059	-	88,347	-
소 계	775,302	28.8	553,664	28.3	
강북권	광진구	91,415	-	67,249	-
	성동구	83,501	-	59,307	-
	용산구	64,041	-	46,385	-
	마포구	98,789	-	71,175	-
	서대문구	83,235	-	61,761	-
	은평구	105,113	-	75,907	-
	종로구	58,781	-	37,601	-
	중구	53,897	-	38,342	-
	성북구	93,459	-	67,560	-
	동대문구	84,690	-	58,228	-
	중랑구	99,971	-	66,937	-
	강북구	72,071	-	50,193	-
	노원구	151,364	-	115,350	-
	도봉구	89,089	-	63,927	-
소 계	1,229,416	45.7	879,922	45.0	
서 울	합 계	2,691,431	100.0	1,956,705	100.0

자료 : 서울통계연보(2003).

- **(편의시설)** : 지역간 격차를 설명하는 변수 가운데 주민 편의시설의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데 유통시설 중에서 백화점은 강남권 집중이 두드러졌으며 금융기관 역시 강남권 집중현상이 심화
- 유통시설의 경우 강남지역은 일반시장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화점의 경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강서권 지역은 일반시장과 백화점 비율 모두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강북권 지역은 일반시장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백화점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금융기관의 경우 강남권 비율은 30%를 차지하여 가구수 비율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강서권 지역은 금융기관의 비율이 가구수 비율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강북권 지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쾌적한 생활여건과 관련이 있는 공원수에서도 다른 요인들과는 마찬가지로 강남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강남권 지역은 전체 공원의 24.9%를 차지하여 가구 수 비율 20.9%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강서권 및 강북권 지역의 공원수는 가구수 비율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편의시설 면에서도 강남권 지역과 그 외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강남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재산과 소득의 집중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역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2> 지역간 편의시설 현황(2002년)

권역	구별	유통시설		편의시설	
		일반시장	백화점	금융기관	공원수
강남권	강남구	25	4	325	100
	서초구	25	3	198	122
	송파구	11	1	130	116
	강동구	13	1	72	72
	비율	21.4	32.1	30.0	24.9
강서권	강서구	9	-	67	121
	관악구	20	1	61	81
	구로구	7	1	65	38
	동작구	15	1	69	42
	양천구	8	2	75	94
	금천구	5	-	44	45
	영등포구	19	3	160	41
	비율	24.0	28.6	22.4	28.1
강북권	광진구	15	-	70	50
	성동구	5	-	63	51
	용산구	14	-	80	37
	마포구	13	-	87	66
	서대문구	7	1	61	48
	은평구	15	-	49	60
	종로구	12	-	156	71
	중구	47	6	246	34
	성북구	11	2	64	25
	동대문구	17	-	81	46
	중랑구	7	-	42	58
	강북구	11	-	44	52
	노원구	9	2	71	124
	도봉구	2	-	33	51
	비율	54.6	39.3	47.6	47.0
서울	합계	346	28	2413	1646

자료 : 서울통계연보(2003)

□ **(교육시설 현황)** : 서울 강남지역에 비해 강북지역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각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강남지역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역시 학교당 학생수가 강북지역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서울 지역 각 자치구별 인문계 고등학교 수와 그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수, 지역내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강남북간 격차가 있음.

· 강남지역은 실제 거주하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강북지역은 거주 학군내에 학교가 모자라서 다른 학군으로 통학하는 학생수가 많은 편임.

· 예를 들어 고등학교 수가 가장 적은 성동구에는 2003년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가 2개교에 불과하지만 강남구에는 17개교가 존재하고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교육시설의 차이는 초등학교수에서도 강남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구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도심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당 평균 학생수는 서초구, 강남구가 적은 편이며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등은 평균학생수가 많은 편임.

·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용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12.55평방미터, 11.3평방미터인 반면 광진구는 6.89평방미터, 중랑구는 7.39평방미터, 서대문구 7.62평방미터를 기록하여 강남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강남북간 교육시설의 차이는 주민 편의시설과 연계되어 강남집중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4-13> 학군별 인문계 고등학교 현황

학군	지역	인문계 재학생수(A)	고교재학 학생수(B)	차이 (A-B)
1	동대문구 중랑구	18,069	34,294	-16,225
2	마포구 서대문구	24,828	45,234	-20,406
3	영등포구 구로구	23,524	37,716	-14,192
4	노원구 도봉구	29,141	46,649	-17,508
5	중로구 중구 용산구	28,571	19,723	+8,848
6	송파구 강동구	35,224	57,403	-22,179
7	강서구 양천구	35,210	49,625	-14,415
8	강남구 송파구	39,842	44,739	-4,897
9	동작구 관악구	19,693	34,558	-14,865
10	성동구 광진구	17,441	28,066	-10,625
11	강북구 성북구	18,258	32,813	-14,555
합계		289783	436,875	-147,092

주 : 강남지역의 경우 인문계 재학생수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학생수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차이가 마이너스인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른 학군에 통학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 서울교육통계연보(2003), 인구주택총조사(2003).

<표 4-14> 교육시설 현황

권역	구별	초등학교 현황		
		학교수	학생수	학교당
강남권	강남구	30	35,007	1,167
	서초구	20	22,550	1,127
	송파구	33	49,407	1,497
	강동구	25	38,539	1,542
강서권	강서구	31	42,089	1,358
	관악구	21	33,597	1,600
	구로구	22	31,235	1,420
	동작구	17	26,105	1,536
	양천구	27	41,175	1,525
	금천구	17	21,150	1,244
	영등포구	21	29,953	1,426
강북권	광진구	17	28,259	1,662
	성동구	15	23,173	1,545
	용산구	14	13,403	957
	마포구	19	24,251	1,276
	서대문구	14	22,645	1,618
	은평구	18	34,532	1,913
	종로구	12	10,953	912
	중구	8	8,899	1,112
	성북구	21	27,391	1,304
	동대문구	17	24,954	1,467
	중랑구	20	34,711	1,736
	강북구	13	22,308	1,716
	노원구	38	52,545	1,382
	도봉구	20	32,253	1,612
서울	-	510	730,984	1,433

자료 : 서울교육통계연보(2003)

□ (주택보급) : 2003년 현재 서울시 공식 주택보급율은 86.3%로 중랑구, 광진구 등에서 낮은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가구 대비 실질 보급률은 81.9%를 기록하고 있으나 보통가구 대비 보급률은 10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등에서 전가구 대비 실질 보급률이 공식보급율보다 높은 이유는 이 지역에 1주택당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비중이 높기 때문임.

· 반대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등에서 전가구 대비 실질보급율이 10% 이상 낮은 이유는 이 지역에 1인 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대체로 강남권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높은 반면 강서권 및 강북권 지역의 주택보급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강북권 지역에서도 도심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의 주택보급율은 높은 편이지만 중랑구, 은평구, 동작구, 금천구 등의 주택보급율은 서울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유단위 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 1주택에 여러 채의 독립 주거단위를 포함하는 주택을 별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며 거주단위 주택은 별도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독립 주거단위를 1주택으로 간주

□ 이러한 현상은 공동주택 대비 아파트 비율에서 강남권과 강북권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

- 강남권 지역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강북지역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시 평균 6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5> 주택보급율 현황

권역	구별	주택보급율		
		공식 주택보급율	일반가구대비 주택보급율	보통가구대비 주택보급율
강남권	강남구	100.2	98.1	131.1
	서초구	100.0	90.5	115.6
	송파구	83.4	76.8	93.8
	강동구	84.6	78.6	96.0
강서권	강서구	98.6	89.3	108.5
	관악구	83.2	80.7	105.0
	구로구	87.1	78.1	99.2
	동작구	74.9	69.7	89.0
	양천구	87.5	83.2	99.0
	금천구	73.2	70.2	92.1
	영등포구	79.5	74.3	95.8
강북권	광진구	66.1	70.8	92.3
	성동구	74.5	72.3	91.8
	용산구	96.2	82.9	110.8
	마포구	104.5	92.9	122.5
	서대문구	82.0	80.4	102.2
	은평구	85.7	87.7	106.1
	종로구	103.9	81.9	112.5
	중구	110.5	86.7	120.0
	성북구	79.5	84.2	106.8
	동대문구	90.0	81.0	109.8
	중랑구	62.8	76.4	93.4
	강북구	84.3	85.5	103.8
	노원구	91.6	80.9	93.8
	도봉구	94.3	92.1	107.4
서울	-	86.3	81.9	103.1

- 1) 공식 주택보급율은 소유단위로 집계된 주택수를 보통가구로 나누어 산정
- 2) 일반가구대비 주택보급율은 거주단위로 집계된 주택수를 전체가구(1인가구, 비혈연가구를 포함하는 모든 가구)로 나누어 산정
- 3) 보통가구대비 주택보급율은 거주단위로 집계된 주택수를 보통가구(일반가구에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나누어 산정

자료 : 서울특별시 주택현황자료(2003).

<표 4-16> 공동주택 및 아파트 현황

권역	구별	공동주택		아파트		
		동	세대수	동	세대수	아파트 비중(%)
강남권	강남구	4,012	126,966	1317	88,601	69.8
	서초구	2,876	77,340	822	60,803	78.6
	송파구	3,781	115,245	1285	82,860	71.9
	강동구	2,389	83,219	985	62,709	75.4
강서권	강서구	3,028	107,280	649	58,649	54.7
	관악구	3,811	56,647	286	19,161	33.8
	구로구	2,651	60,034	582	40,431	67.3
	동작구	1,634	57,048	306	35,282	61.8
	양천구	3,494	91,462	691	52,207	57.1
	금천구	1,079	28,432	166	15,298	53.8
	영등포구	849	49,533	458	42,099	85.0
강북권	광진구	2,825	34,257	220	20,739	60.5
	성동구	1,535	48,538	300	31,653	65.2
	용산구	1,421	31,344	347	21,136	67.4
	마포구	3,360	70,593	260	23,110	32.7
	서대문구	2,207	40,735	274	17,519	43.0
	은평구	4,663	62,068	174	13,634	22.0
	종로구	1,645	17,084	130	5,701	33.4
	중구	787	13,891	92	4,535	32.6
	성북구	1,455	45,233	223	25,825	57.1
	동대문구	1,438	40,264	227	24,168	60.0
	중랑구	1,353	47,255	310	29,834	63.1
	강북구	2,075	42,330	99	14,476	34.2
	노원구	1,726	128,539	906	98,707	76.8
	도봉구	1,710	71,809	480	56,285	78.4
서울		57,804	1,547,146	11589	945,522	61.1

4. 요약 및 정책과제

- 강남북간 재산상 격차는 부동산 가격의 격차로 설명이 가능한데, 강남권 및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강남북간 아파트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국민은행의 조사(2004, 6. 28)에 따르면 세대수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강남구의 아파트 평당가격은 2,249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의 1.93배, 전국 평균의 3.68배에 달하고 있음.
 - 재산세 부과 역시 강남북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강남권 재산세 부과 실적(2002년)은 서울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3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서권은 재산세 부과실적은 서울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북권은 42.6%를 차지하고 있음.
 - 종합토지세의 경우 강남권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강남권의 종합토지세 부과액의 점유율은 재산세 부과액보다 많은 3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서권은 재산세 부과액보다 낮은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북권은 재산세 부과액과 비슷한 43.0%를 차지하고 있음.
- 강남북간 소득격차는 조사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민은행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북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가구당 소득의 경우 국민은행이 조사 발표한 2003년 주택금융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8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강북지역은 288만원, 강남지역은 307만원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강남북 격차는 약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강남지역은 최근까지도 교육시설 및 생활여건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상류층 주거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강남북 재산 및 소득의 격차는 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기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여건, 도심으로의 접근성, 근린생활시설의 발달 등으로 강남지역은 선호지역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임.

□ 강남지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 및 주거환경이 탁월하기 때문임.

- 이러한 사실은 8학군으로 대표되는 신홍 명문고등학교의 집중으로 대학 입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여기에 우수한 사설학원이 모여들면서 강남권은 더욱 견고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강남권은 도로면적, 백화점, 근린공원, 금융기관 등 주민편익시설 면에서도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짐.

□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강남을 축소시키는 마이너스 섬이나 제로섬이 아닌 강북지역의 생활수준을 강남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플러스 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시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생활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강북지역에 공원, 도서관, 공연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임.

- 교육환경을 강남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

-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교육기관의 균형배치, 학교 주변시설에 대한 환경 정화,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 등을 통해 강북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 차원의 행정 및 재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시설 및 여건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지원

-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노후 불량지역 정비,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등을 제고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확보
 - 강북지역의 뉴타운 사업을 통한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및 부도심에 대한 종합적 개발전략을 추진
-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
 -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행정서비스의 격차,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운영방안을 추진
 - 조정교부금제도, 시비 보조금제도 등의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주민편의시설 등이 낙후된 자치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V. 강남북 학생 인식조사

1. 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목적

-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의 불균형은 교육, 문화, 재정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은 불균형 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 불균형적인 인식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대시키고 나아가 현실 자체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경향 있음
- 본 절은 강남·북 경제력 격차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민 위화감의 실체와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서베이를 통해 분석
- 특히 지역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인식이 실제 경제력 격차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시정개발연구원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조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특히 서울시 강남·북 및 수도권 거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 불평등과 위화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일반 주민의 인식과 비교.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남·북 불균형 시정 정책의 방향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함하고자 함.

(2) 연구 배경

- 현재 지역 격차는 일반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 시설, 문화시설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 격차의 분석 대상:
 - 경제적 격차: 지역간 소득격차

- 공간 격차 : 지역간 생활환경의 격차

- 주거환경 : 1인당 주거면적, 노후주택 비율, 아파트 평당 가격 등
- 산업경제 :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율, 순고용밀도, 재정자립도 등
- 기반시설 : 주차장 확보율, 정보화 지수, 1인당 공원면적 등
- 문화, 의료 교육 : 1만명당 문화시설 수, 10만명당 병원 수, 학생 1인당 학원비율 등

□ 지역격차 현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예상대로 경제, 산업, 문화, 기반시설 등의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재정력, 도로면적, 학생 1인당 입시학원 수 등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강남 지역인 반면, 노후 주택, 쓰레기 적환장 등 불리한 생활여건 면에서는 강북 지역이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표 5-1>).

<표 5-1> 주요 지수의 최고 및 최저치 기록 구역

지표	평균	최고	최저
재정력 지수 (최근 3년 평균)	62.4%	강남구: 197.4%	강북구: 32.4%
1인당 도로면적	7.68m ²	서초구: 12.3m ²	관악구: 5.0m ²
주차장 확보비율		서초구: 90.6%	성북구: 42.7%
주택가변 차량 통행 불가능 필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4.5%	서대문 26.5%	강남 9.8%
학생 1인당 입시학원수	7.8개	종로구: 23%	강남구: 0.1%
정보화 지수	105	강남구: 195%	중구 0.5%
인구 만명당 병원수	10.3개	도봉구: 83%	중구: 33.2%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 수	0.7개	강북구: 6.4%	종로구 11.1%
쓰레기 적환장		구로구 0.1%	성동, 성북, 구로 4 곳
전철 차량 기지		서초, 송파 1 곳	총 7곳 중 강북에 6곳

자료: 서울시, www.seoul.go.kr

- 재정력 및 생활편의시설 격차를 보면 강남구에 속한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표 5-2> 참조).

<표 5-2> 재정 및 생활편의시설 최고 및 최저 보유 지역 현황

항목	주요 최고 및 최저 보유 지역의 현황
구별 도시 재정력 지수	강남구 (191.1), 중구 (146.3), 서초구 (112.1) 은평구 (30.8), 강북구 (32.3), 노원구 (34.3)
구별 생활편의시설 I (시장, 백화점, 도매센터, 대형할인점)	중구 (55), 서초구 (35), 강남구 (34) 금천구 (7), 서대문구 (7), 도봉구 (9)
구별 생활편의시설 II (영화관, 종합체육관)	강남구 (46), 중구 (31), 종로구 (26), 서대문구 (20) 금천구 (1), 성동구 (1), 광진구 (2)
구별 녹지비율	노원구 (64.3), 서초구 (60.7), 강서구 (60.5) 중구 (0), 동대문구 (0.8), 양천구 (2.3), 동작구 (4.3)

- 강남북의 주요 세 개 구를 비교한 다음의 표에서도 대규모 점포, 근린공원, 미관지구, 공연시설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5-3> 강남북 주요 구(區)간의 환경비교

구분		인구 (만명)	대규모 점포 (개소)	근린공원 (개소)	미관지구 (개소)	공연시설 (개소)
강남 지역	A구	54	9	32	1.41	2
	B구	40	6	21	1.39	2
	C구	65	2	38	1.41	2
강북 지역	D구	64	4	25	0.05	0
	E구	47	2	8	0.62	1
	F구	38	1	19	0.92	0

주: 대규모 점포(백화점, 도매센터, 대형점, 쇼핑센터), 공연시설(300석 이상의 공연장)
출처:주택시장의 불안지속 원인파 해법(삼성경제연구소, 2003.11.5)

- 이러한 현황에 대한 주민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시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 또한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다양한 생활 패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패턴에서의 강남북 차이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오락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할 것(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부록 1 참조)

2. 연구 방법

- 강남북에 대한 인식 차이 및 강남북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함

- 연구 문제: 두 개의 가설과 한 개의 탐구 주제를 정함

- Q1 : 강남북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강남북 지역에 대하여 차별화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

- Q1a : 일반적으로 강남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가설 1 : 강북보다는 강남에 대하여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 Q1b : 강남북에 거주하는 학생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간에 강남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가설 2 :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평가를 더 호의적으로 할 것이다

- Q2 : 강남북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는 차이점이 있는가?

- 위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강북 지역의 대학생들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문항 중 강남과 강북지역에 대한 문항은 '문화,' '오락,' '교육,' '재정' '거주자에 대한 평가'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언어를 이용하여 각 문항이 ① '항상 강남,' ② '주로 강남,' ③ '차이없음,' ④ '주로 강북,' ⑤ '항상 강북' 의 5 점 척도를 이용할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하도록 함.

- 강남쪽에 치우친 응답(3 보다 낮은 수)을 하게 되면 강남에 대하여 더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 강북쪽에 치우친 응답을 하게 되면 강북에 대하여 더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
- 문항에는 각 지역의 문화, 오락, 교육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지역에 대한 문항과 그 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평가문항 및 지역에 대한 선호도 문항도 포함되어 있음
- 강남북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의 예:
 -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
 - 더 부유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 옷을 살 때 이용하는 지역
 - 내가 살고 싶은 지역
 - 좋은 학원들이 있는 지역
- 강남과 강북의 지역 구분은 일반적인 인식에 의한 구분과 행정적인 위치에 의한 구분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와 행정적인 위치에 의한 구분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기타 서울 및 기타 지방으로 구분함.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자아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와는 다르다는 가정 하에 강북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 구별하고 기타 서울지역과 지방거주자를 구분하여 분석함.
-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의미의 '강북'의 의미에 가장 적절한 지역인 동북권을 포함시켰고 강남권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강남'에 가장 적절한 동남권을 포함시켰음.
- 강남북 지역 구분에 사용된 기준
 - 강북 : 동북권

- 동북1권(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동북2권(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강남 : 강남권

- 강남 1권(서초구, 강남구), 강남2권(송파구, 강동구)

- 기타 서울 :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서북권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서남권 : 서남1권(강서구, 양천구), 서남2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남3권(동작, 관악구)

설문 문항에서 '강남'과 '강북'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식에 기초함

설문 문항 중 라이프스타일의 측정에는 LOV(List of Value) 방식의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문항 50개를 선정, '매우 그렇지 않다'를 ①로, '매우 그렇다'를 ⑤로 설정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하도록 함.

문항의 항목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관, 평소 생활습관 및 장차생활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설문 문항의 예:

- 나는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나는 보수가 많지 않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 나는 장차 나의 노부모(혹은 시부모)를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모시겠다.

3. 연구 결과

- Q1, '강남북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강남북 지역에 대하여 차별화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 '오락,' '교육,' '재정' 등을 측정하기 위한 5 점 척도의 문항을 분석함.

3.1. 가설 1: 강북보다는 강남에 대하여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 강남북 인식에 대한 평균값을 보면 쇼핑, 외식, 문화생활 등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값이 3.0 이하로, 강남 치중현상을 보이고 있음

- 설문문의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상거래 관련 문항: 쇼핑, 물건, 의류, 학용품
- 문화 및 오락관련 문항: 음식점, 노래방, 카페
- 교육 관련 문항: 좋은 학원, 내 학원, 좋은 대학
- 경제수준 관련 문항: 부유한 친구
- 선호도 관련 문항: 주로 만나는 지역, 내가 살고 싶은 지역
- 거주자에 대한 평가 문항: 세련된 옷차림, 순수한 친구, 친한 친구, 똑똑한 친구,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

- **상거래 관련 문항들의** 평균값을 보면 약간 강남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항목으로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M=2.74)이 있고 내가 쇼핑을 하는 지역(M=2.93)이나 옷을 살 때 이용하는 지역(M=3.04)의 항목은 강남북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학용품을 구입하는 지역(M=3.12)가 약간 강북 치중도를 보이고 있음. 응답자들이 강북에 위치한 대학에 속해있는 학생들이나 점을 감안할 때 학용품 구입이 강북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임(<표 5-4>). → 상거래 관련 항목에서는 강남 치중도가 비교적 덜한 편이나 강북 치중보다는 강남 치중이 더 돋보임

<표 5-4> 강남북에 대한 인식: 상거래 관련 문항

설문 문항	평균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	2.74
옷을 살 때 이용하는 지역	3.04
주로 쇼핑을 하는 지역	2.93
학용품을 구입하는 지역	3.12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북' 선호(n=97)

- **문화오락 관련 문항**들의 평균값을 보면 대체적으로 강남에 치중되어 있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지역(M=2.74), 재미있는 노래방이 있는 지역(M=2.89), 멋진 카페가 주로 있는 지역(M=2.44) 문항 모두 강남 치중 현상을 보임 (<표 5-5>) → 가설 1의 예측대로 강남지역이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됨

<표 5-5> 강남북에 대한 인식: 문화오락 관련 문항

설문 문항	평균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 지역	2.74
재미있는 노래방이 있는 지역	2.89
멋있는 카페가 주로 있는 지역	2.44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북' 선호(n=97)

- **교육 관련 문항**들 역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살아야 하는 지역'(M=2.53)을 비롯하여 '좋은 학원이 있는 지역'(M=2.42), 내가 주로 다닌 학원이 있는 지역(M=2.84)에서도 강남 치중 현상이 나타남. → 가설 1의 예측대로 강남 교육 여건이 강북에 비해 더 좋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5-6> 강남북에 대한 인식: 교육 관련 문항

설문 문항	평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살아야 하는 지역	2.53
좋은 학원들이 있는 지역	2.42
내가 주로 다닌 학원이 있는 지역	2.84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북' 선호(n=97)

- 경제수준 관련 문항에는 '부유한 친구들이 주로 사는 지역' 문항 하나가 있었는데 강한 강남 치중 현상(M=2.00)을 보임 → 가설 1의 예측대로 강남 지역에 대한 평가가 더욱 호의적임

<표 5-7> 강남북에 대한 인식: 경제수준 관련 문항

설문 문항	평균
더 부유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2.00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북' 선호(n=97)

- 선호도 관련 문항들에는 '주로 친구들과 만나는 지역'과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친구들과 주로 만나는 지역'(2.99)은 치중현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지역'(2.60)에는 강남 치중현상이 나타남. 응답자들이 강북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들인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강북 치중 현상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강남 쪽으로 치우친 응답이 나왔음을 알 수 있음 (<표 5-8>) → 가설 1의 예측대로 선호도에서도 강남에 더욱 호의적인 결과가 나옴

<표 5-8> 강남북에 대한 인식: 선호도

설문 문항	평균
친구들과 주로 만나는 지역	2.99
내가 살고 싶은 지역	2.60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북' 선호(n=97)

- 지역 거주자에 대한 평가 문항 중 강남 치중 현상을 보인 항목은 '더 세련된 옷차림의 친구들이 사는 지역'(M=2.25)이었고 '같이 놀 때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사는 지역'(M=2.84)과 '더 똑똑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M=2.82)는 약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였음.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사는 지역'(M=2.99)에는 치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더 순수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M=3.24) 한 문항에만 약한 강북 치중 현상이 나타남. → 지역 거주자에 대한 평가에서는 '세련된 옷차림'의 경우에만 강남에 호의적인 결과가 나왔고 '순수한 친구' 항목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강북에 치우친 결과가 나옴.

<표 5-9> 강남북에 대한 인식: 지역 거주자에 대한 평가

설문 문항	평균
같이 놀 때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사는 지역	2.84
더 세련된 옷차림의 친구들이 사는 지역	2.25
더 순수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3.24
내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사는 지역	2.99
더 똑똑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2.82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북' 선호(n=97)

- 결과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강남 치중현상이 나타남. 이는 강남북에 대한 인식이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
- 유일하게 강북 치중 현상을 보이는 것은 '더 순수한 친구가 사는 지역'과 '학용품 구입하는 지역'으로, '학용품' 항목은 강북에 위치한 학교에 속해있는 학생들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지만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순수한 친구' 항목은 주목할 만한 현상

3.2. 가설 2: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평가를 더 호의적으로 할 것이다

-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강남과 강북, 그리고 기타 서울과 기타 지방으로 나누어 분석함

거주 지역에 따라 설문 문항 응답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강남,' '강북,' '기타 서울,' '기타지역'으로 구분한 '지역' 변인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함.

상거래, 문화오락, 교육, 경제, 선호도, 거주자 평가 등의 분류를 이용하여 각각의 결과를 살펴봄

상거래 관련 문항

-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
- 주로 쇼핑을 하는 지역
- 옷을 살 때 이용하는 지역
- 학용품을 구입하는 지역

<표 5-10> 거주지역에 따른 상거래 관련항목(물건, 쇼핑, 의류, 학용품) 응답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제대로 된 물건	평균	2.91	2.80	2.60	2.38	2.74	3.362	0.022
	N	44	20	10	21	95		
주로 쇼핑	평균	3.30	2.75	2.80	2.38	2.93	5.687	.001
	N	44	20	10	21	95		
옷 살 때 이용	평균	3.41	2.95	2.80	2.48	3.04	7.208	.000
	N	44	20	10	21	95		
학용품 구입	평균	3.50	2.90	3.00	2.57	3.13	12.339	.000
	N	44	20	10	21	95		

① '항상 강남,' ~ ⑤ '항상 강북'의 5점 척도 이용

상거래 관련 문항은 모두 거주 지역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 문항은 강남 치중 현상(M=2.74)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강북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강남 치중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M=2.91)
- '주로 쇼핑 하는 지역' 문항의 경우 강북 거주자는 강북 치중 현상이 (M=3.30), 강남 거주자는 강남 치중 현상(M=2.75)이 나타남. 주목할 만한 것은 강북거주자 이외 지역의 거주자는 모두 강남 치중 현상(M=2.80과 2.38)이 나타났다는 것
- '옷을 살 때 이용하는 지역' 문항 역시 강북 거주자의 경우 강북 치중현상이(M=3.41) 나타난 반면 기타 지역 거주자는 강남 치중현상(M=2.80, 2.48)을 보였다는 것임. 강남 지역 거주자의 강남 치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M=2.95)은 예상과 다른 결과임
- 학용품 구입 항목은 오히려 강북 치중현상이 더 두드러진 항목.(M=3.13) 하지만 강북 거주자의 치중 현상이 가장 두드러짐(M=3.50)
- **문화, 오락 관련 문항**
 -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 지역
 - 재미있는 노래방이 있는 지역
 - 멋진 카페가 주로 있는 지역

<표 5-11> 거주 지역에 따른 문화 관련 항목(음식점, 노래방, 카페) 응답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재미있는 노래방	평균	2.95	3.00	2.80	2.67	2.88	1.300	.279
	N	44	20	10	21	95		
정말 맛있는 음식점	평균	2.79	2.90	2.70	2.71	2.75	.396	.756
	N	44	20	10	21	95		
멋있는 카페	평균	2.45	2.40	2.80	2.29	2.44	1.002	.396
	N	44	20	10	21	95		

① '항상 강남,' ~ ⑤ '항상 강북'의 5점 척도 이용

- 거주 지역에 따른 문화 관련 항목의 평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p>.05$)
- 이는 재미있는 노래방, 맛있는 음식점, 멋진 카페가 있는 지역으로 모든 지역 거주자가 강남 치중현상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문화오락 시설의 경우 모든 지역 거주자가 강남지역이 더욱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교육 관련 문항**
 - 좋은 학원들이 있는 지역
 - 내가 주로 다닌 학원이 있는 지역
 -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살아야 하는 지역

<표 5-12>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좋은 학원, 내 학원, 좋은 대학) 응답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i>F</i>	<i>Sig.</i>
좋은 학원	평균	2.61	2.35	2.20	2.19	2.42	1.450	.233
	N	44	20	10	21	95		
내가 다닌 학원	평균	3.20	2.85	2.60	2.14	2.83	6.409	.001
	N	44	20	10	21	95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평균	2.55	2.50	2.50	2.48	2.52	.045	.987
	N	44	20	10	21	95		

① '항상 강남,' ~ ⑤ '항상 강북'의 5점 척도 이용

-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 관련 항목 응답에 차이를 보인 것은 '내가 다닌 학원'이 위치한 지역임. 특히 강북 거주자는 강북 치중 현상을($M=3.20$) 보였고 강남 지역 거주자($M=2.85$)와 서울 기타지역 거주자($M=2.60$) 및 기타 지방 거주자($M=2.14$)는 모두 강남 치중 현상을 보였기 때문임.

□ ‘좋은 학원들이 있는 지역’ 항목은 거주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지역 거주자가 강남 치중 현상을 보였기 때문(M=2.61, 2.35, 2.20, 2.19). 이처럼 강북 지역 거주 학생들의 경우, 실제로 강남 지역의 학원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강남 지역의 학원들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남

□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살아야 하는 지역’으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강남 지역 치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M=2.55, 2.50, 2.50, 2.48).

□ **경제수준 관련 문항**

- 더 부유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표 5-13> 거주 지역에 따른 경제 수준 응답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더 부유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평균	1.98	2.10	1.80	2.05	2.00	.649	.586
	N	44	20	10	21	95		

① ‘항상 강남,’ ~ ⑤ ‘항상 강북’의 5점 척도 이용

□ 설문 문항 중 가장 뚜렷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인 것이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더 부유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문항임. 이 문항 역시 모든 지역 거주자가 동일하게 뚜렷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M=1.98, 2.10, 1.80, 2.05)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거주 지역에 따른 선호도 문항**

- 친구들과 주로 만나는 지역

-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표 5-14> 거주 지역에 따른 선호도 응답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친구들과 주로 만남	평균	3.32	3.20	2.80	2.24	3.00	7.300	.000
	N	44	20	10	21	95		
내가 살고 싶음	평균	2.81	2.75	2.40	2.10	2.60	2.971	.036
	N	44	20	10	21	95		

① '항상 강남,' ~ ⑤ '항상 강북'의 5점 척도 이용

□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로 '친구들을 주로 만나는 지역'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하지만 특이한 사항은 강북 거주자(M=3.32)와 강남 거주자(M=3.20)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서울지역(M=2.80) 및 기타 지방 거주자(M=2.24)간에 큰 차이를 보임.

□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항목으로, 모든 응답자가 강남 치중 현상을 보였지만 강북지역 거주자(M=2.81)와 강남지역 거주자(M=2.75)간의 차이보다는 기타 서울지역 거주자(M=2.40)와 기타 지방 거주자(M=2.60)의 경우 더욱 강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였다는 것.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에 비해 더욱 강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 거주자에 대한 평가 문항

- 같이 놀 때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사는 지역
- 더 세련된 옷차림의 친구들이 사는 지역
- 더 순수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 내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사는 지역
- 더 똑똑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표 5-15> 거주 지역에 따른 지역 거주자 평가 응답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	평균	2.98	2.95	2.90	2.38	2.83	3.005	0.034
	N	44	20	10	21	95		
세련된 옷차림의 친구	평균	2.32	2.35	2.22	2.00	2.24	1.131	.341
	N	44	20	10	21	95		
순수한 친구	평균	3.32	3.20	3.00	3.20	3.24	.690	.561
	N	44	20	10	21	95		
친한 친구	평균	3.25	3.20	2.90	2.29	2.99	5.681	.001
	N	44	20	10	21	95		
똑똑한 친구	평균	2.95	2.80	2.80	2.57	2.82	1.887	.137
	N	44	20	10	21	95		

① ‘항상 강남,’ ~ ⑤ ‘항상 강북’의 5점 척도 이용

- 거주 지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문항은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와 ‘친한 친구’ 문항임.
- ‘세련된 옷차림의 친구’ 문항에서는 모든 지역 거주자가 강한 강남 지역 치중 현상을 보였음(M=2.32, 2.35, 2.22, 2.00)
- ‘순수한 친구’의 문항에서는 모든 지역 거주자가 강북지역 치중 현상을 보였음(M=3.32, 3.20, 3.00, 3.24)
- ‘똑똑한 친구’ 문항에서는 모든 지역 거주자가 약한 강남 지역 치중 현상을 보였음(M=2.95, 2.80, 2.80, 2.57)

3.3. 강남북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는 차이점이 있는가?

- Q2, ‘강남북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는 차이점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문항 중 5점 척도로 질문을 한 ‘라이프스타일’ 문항 50개를 분석

- 라이프스타일 문항들을 ‘강남,’ ‘강북,’ ‘기타 서울,’ ‘기타지역’으로 구분한 ‘지역’ 변인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 라이프스타일 문항과 관련된 항목들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탐색적인 목적에 이용됨
- 하지만 분석 결과, 라이프스타일 50개의 문항 중 강남북 거주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2 전체 표 참조)

4. 결론 및 제언

- 가설 1, ‘강남 지역에 대한 평가가 더 호의적일 것이다’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지됨.
- 제대로 된 물건 구입, 일반적인 쇼핑, 의류 구입, 학용품 구입 등 **상거래 관련 항목**에서는 강남 치중도가 비교적 덜한 편이나 강북 치중보다는 강남 치중이 더 돋보임
- 음식점, 노래방, 카페 등 **문화오락 관련 문항들**에서는 가설 1의 예측대로 강남지역이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됨
- 교육 관련 문항들**에서 역시 가설 1의 예측대로 강남 교육 여건이 강북에 비해 더 좋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수준 관련 문항**에는 가설 1의 예측대로 강남 지역에 대한 평가가 아주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선호도 관련 문항들**에서 역시 가설 1의 예측대로 선호도에서도 강남에 더욱 호의적인 결과가 나옴
- 지역 거주자에 대한 평가 문항**에서는 ‘세련된 옷차림’의 경우에만 강남에 호의적인 결과가 나왔고 ‘순수한 친구’ 항목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강북에 치우친 결과가 나옴.
- 결과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강남 치중현상이 나타나, 가설 1이 대체적으로 지지된 것으로 결론지음.

- 가설 2,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평가를 더 호의적으로 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됨
- 상거래 관련 문항에서는 모두 거주 지역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강남 치중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강북 거주자는 강남 거주자나 기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강북 치중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남
- 흥미로운 결과는 예상과 달리 강남지역 거주자가 강북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다른 여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더 강한 강남치중현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 기타 서울 지역 거주자 및 기타 지방(서울근교) 거주자가 더 강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인 경우가 많았음
- 문화, 오락 관련 문항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른 문화 관련 항목의 평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지역 거주자가 강남지역이 더욱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교육 관련 문항 중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 관련 항목 응답에 차이를 보인 것은 '내가 다닌 학원'이 위치한 지역임. 특히 강북 거주자는 강북 치중 현상을 보였고 강남 지역 거주자와 서울 기타지역 거주자 및 기타 지방 거주자는 모두 강남 치중 현상을 보였기 때문임.
- '좋은 학원들이 있는 지역' 항목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살아야 하는 지역'으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강남 지역 치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교육 여건의 경우, 강북 지역 거주자는 강남 지역의 학원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면서도 실제로 다닌 학원은 강북 지역에 치중되어 있음이 나타남. 기타 지역 거주자는 모두 실제로 다닌 학원이 강남지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상대적 박탈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설문 문항 중 가장 뚜렷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인 것이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더 부유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문항으로, 모든 지역 거주자가 동일하게 뚜렷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임.
- 거주 지역에 따른 선호도 문항인 '친구들을 주로 만나는 지역'과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기타 서울지역 및 기타 지방지역 거주자가 강한 강남 치중 현상을 보였기 때문. →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에 비해 더욱 강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 거주자에 대한 평가 문항 중 거주 지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항목은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와 '친한 친구' 항목임.
- '세련된 옷차림의 친구' 문항과 '똑똑한 친구' 문항에서는 모든 지역 거주자가 강남 지역 치중 현상을 보였음
- '순수한 친구'의 항목에서는 모든 지역 거주자가 강북지역 치중 현상을 보였음
- 결론적으로, 가설 2에서는 많은 항목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옴.
- 특히 실질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가 다닌 학원'이나 '상거래' 관련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하지만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강남 치중현상을 보임
- 이는 강북 거주자들이 실생활에서는 강북지역 치중 현상을 불가피하게 보이지만 강남 지역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강북과 강남 지역이 아닌 기타 서울지역 및 기타 서울 근교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강남 선호 인식이 아주 강하다는 것

- 제언 : 강남북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로 강남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강북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실생활 관련된 문항에서는 강북 치중현상을 보이지만 일반 평가 관련 문항에서는 강남 치중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강북 지역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비강북 거주자이면서 비강남 거주자 집단에서 강한 강남 선호 현상을 보인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할 것
- 특히 교육과 문화오락 관련 문항에서 뚜렷한 강남치중 현상을 보였다는 것을 주목해서 강북지역의 교육과 문화오락 관련 분야 발전에 더욱 힘을 써야할 것임
- 지역의 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과도 관계있는 중요한 개념
- 하지만 무조건 '동등'의 의미의 균형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각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함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서울의 강북과 강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설문에 관한 자료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으나 한 문항도 빠짐없이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항은 0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 ▶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귀하의 라이프스타일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0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설문내용	설문태도				
		전혀 아니다 ①	아니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나는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2	나는 좋아해서 자주 하는 스포츠나 취미가 있다					
3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4	나는 하고 싶은 것 다 억제해 가며 내 집 마련에 힘쓰기보다는 전셋집에 살아도 즐길 것을 즐기며 살 것이다(혹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5	나는 나 자신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6	나는 리더가 되어 고생하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따르는 것이 좋다					
7	나는 보수가 많지 않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8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개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					
9	나는 장차 나의 노부모(혹은 시부모)를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모시겠다(혹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10	나는 내 손으로 글을 쓰거나 뭔가 만들기를 좋아한다					
11	나는 나의 옷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					
12	나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스타벅스나 커피빈 등의 커피가 여타의 좀 더 저렴한 커피들보다 좋고 자주 이용한다					
14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패션은 매우 중요하다					
15	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스포츠나 취미에 관한 활동을 한다					
16	나는 노력해서 출세해야만 진정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누군가가 모임에서 굳은 일을 해야할 때 주로 자발적으로 맡아 한다					

문 항	설문내용	설문태도				
		전혀 아니다 ①	아니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9	나는 출세 같은 것은 필요 없다					
20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한 영화나 공연은 꼭 보고야 만다					
21	나는 “나의 장래가 밝다”고 확신한다					
22	나는 프로야구나 축구경기에서 지역 연고팀을 열렬히 응원한다					
23	나는 뉴스를 매일 듣고(알고) 싶어한다					
24	나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5	나는 패션을 위하여 들이는 돈이나 시간이 아깝지 않다					
26	나는 어릴 때부터 감투 쓰는 것을 좋아했다(반장, 부반장, 골목 대장 등)					
27	나는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다					
28	나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적극 도와주는 편이다					
29	나는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30	나는 경제적으로 운택하지 않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31	나는 가족과 함께 놀러 나가는 것이 즐겁다					
32	내가 다니는 조직(대학이나 직장 등)에 대한 사회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33	나는 여가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보다 돈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34	나는 양복이나 장신구 등은 비교적 눈에 띄는 것을 산다					
35	나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기에 유명한 인물이 되고 싶다					
36	나는 일로 인한 성취욕 보다는 취미나 여행을 즐기며 맘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37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38	나는 전통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문 항	설문내용	설문태도				
		전혀 아니다 ①	아니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39	나는 가족, 회사를 위해 희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0	나는 술과 노래가 있는 모임을 좋아한다					
41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가족끼리의 대화를 좀 더 자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2	나는 이름 없는 브랜드나 이미테이션은 좋아하지 않는다					
43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44	나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는 목표를 세워 노력하는 편이다					
45	나는 작은 소품이라도 명품을 갖고 싶다					
46	나는 가족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내 기분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	나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도록 노력한다					
48	국가(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때 나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선택하겠다					
49	나는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라도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50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관계를 맺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 이제부터는 다음의 상황이 서울의 강남 및 강북 지역 중 어느 곳에 주로 해당하는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 항	설문내용	설문태도				
		항상 강남 ①	주로 강남 ②	차이없음 ③	주로 강북 ④	항상 강북 ⑤
51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					
52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 지역					
53	더 부유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54	같이 놀 때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사는 지역					
55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살아야 하는 지역					
56	옷을 살 때 이용하는 지역					
57	더 세련된 옷차림의 친구들이 사는 지역					
58	더 순수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59	내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사는 지역					
60	재미있는 노래방이 있는 지역					
61	더 똑똑한 친구들이 사는 지역					
61	주로 쇼핑을 하는 지역					
62	친구들과 주로 만나는 지역					
63	멋있는 카페가 주로 있는 지역					
64	내가 살고 싶은 지역					
65	학용품을 구입하는 지역					
66	좋은 학원들이 있는 지역					
67	내가 주로 다닌 학원이 있는 지역					

<부록 2> 라이프스타일 관련 문항 일원변량분석 결과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새로운 패션 받아들임	평균	3.00	2.90	3.20	2.76	2.95	.585	.626
	N	44	20	10	21	95		
자주하는 스포츠 있다	평균	3.68	3.60	3.90	3.38	3.62	.641	.591
	N	44	20	10	21	95		
출세위해 노력 아끼지 않음	평균	3.50	3.50	3.10	3.67	3.49	.899	.455
	N	44	20	10	21	95		
즐길것은 즐기며 산다	평균	3.09	3.15	2.60	2.76	2.98	1.076	.363
	N	44	20	10	21	95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	평균	2.93	2.95	3.20	2.86	2.95	.389	.761
	N	44	20	10	21	95		
리더보다 마음 편하게	평균	2.73	2.80	2.90	2.57	2.73	.323	.809
	N	44	20	10	21	95		
보수 적어도 보람있는 일	평균	3.27	3.05	3.30	3.45	3.27	.323	.809
	N	44	20	10	21	95		
개성있는 삶 살고싶다	평균	3.41	3.35	3.60	3.33	3.40	.184	.907
	N	44	20	10	21	95		
노부모 모시겠다	평균	4.20	4.15	4.30	3.57	4.06	2.274	.085
	N	44	20	10	21	95		
글쓰거나 만들기 좋아한다	평균	3.70	3.40	3.30	3.52	3.56	.816	.488
	N	44	20	10	21	95		
옷에 대해 신경안씀	평균	2.50	2.65	1.60	2.81	2.51	3.760	.014
	N	44	20	10	21	95		
용돈위해 아르바이트 필요	평균	3.57	3.70	3.30	3.62	3.58	.481	.697
	N	44	20	10	21	95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스타벅스등 비싼커피 이용	평균	2.45	2.50	2.30	2.71	2.51	.268	.848
	N	44	20	10	21	95		
패션으로 나를 표현	평균	3.68	3.70	3.60	3.14	3.55	1.987	.122
	N	44	20	10	21	95		
스포츠및 취미활동 한다	평균	3.82	3.85	3.60	3.52	3.74	.518	.671
	N	44	20	10	21	95		
노력해서 출세해야함	평균	3.43	3.10	3.50	3.57	3.40	.825	.484
	N	44	20	10	21	95		
결혼후 아이낳을 필요없다	평균	2.70	2.75	2.40	2.71	2.68	.197	.898
	N	44	20	10	21	95		
긋은일을 자발적으로	평균	3.23	3.00	3.30	2.90	3.12	.910	.439
	N	44	20	10	21	95		
출세 필요없다	평균	1.98	2.00	1.60	1.81	1.91	1.090	.357
	N	44	20	10	21	95		
다른사람 추천영화 봐야함	평균	3.00	2.95	3.10	2.71	2.94	.634	.595
	N	44	20	10	21	95		
장래 밝다고 확신	평균	3.57	3.55	3.70	3.86	3.64	.627	.599
	N	44	20	10	21	95		
스포츠에서 지역 연고팀 응원	평균	2.61	2.25	2.80	2.24	2.47	.989	.402
	N	44	20	10	21	95		
뉴스 매일 듣는다	평균	3.70	3.75	3.60	3.67	3.69	.074	.974
	N	44	20	10	21	95		
맛별이부부 바람직	평균	3.55	3.70	3.70	4.05		1.392	.250
	N	44	20	10	21	95		
패션위한 돈 아깝지 않다	평균	3.23	2.80	3.10	3.52	3.19	1.407	.246
	N	44	20	10	21	95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는 것 좋아함	평균	3.11	2.95	2.80	2.81	2.98	.560	.643
	N	44	20	10	21	95		
내 방식대로 사는것 좋다	평균	3.42	3.30	3.50	3.62	3.44	.575	.633
	N	44	20	10	21	95		
곤란한사람 적극 도와줌	평균	3.11	2.85	3.20	2.95	3.03	.913	.438
	N	44	20	10	21	95		
각종 모임에 적극 참석	평균	3.23	3.10	3.20	2.86	3.12	.858	.466
	N	44	20	10	21	95		
경제유택 보다 마음 편하게	평균	3.43	3.30	3.10	3.15	3.31	.518	.671
	N	44	20	10	21	95		
가족과 나가는것 즐겁다	평균	3.84	3.45	3.70	3.43	3.65	1.587	.198
	N	44	20	10	21	95		
내 조직과 내 평가와 관련	평균	3.84	3.60	3.20	3.62	3.67	1.932	.130
	N	44	20	10	21	95		
여가위해 시간보다 돈 중요	평균	3.25	3.25	3.50	3.33	3.29	.248	.863
	N	44	20	10	21	95		
장신구 등 눈에 띄는것 좋음	평균	3.05	2.75	3.30	2.85	2.97	1.048	.375
	N	44	20	10	21	95		
빠른 시기에 유명인물 되고싶어	평균	3.36	3.10	3.60	3.52	3.37	.675	.569
	N	44	20	10	21	95		
성취욕보다 취미나 여행	평균	3.27	3.25	2.90	3.19	3.21	.569	.637
	N	44	20	10	21	95		
사회에 도움 되는 일 하고싶다	평균	3.61	3.40	4.00	3.48	3.57	1.553	.206
	N	44	20	10	21	95		
전통은 보존할 가치있다	평균	3.69	3.55	3.40	3.52	3.59	.360	.782
	N	44	20	10	21	95		

		강북거주	강남거주	기타서울	기타지역	총합	F	Sig.
가족 회사 위해 희생	평균	3.18	3.50	3.90	3.10	3.31	2.966	.036
	N	44	20	10	21	95		
술과 노래 모임 좋아함	평균	3.59	3.45	4.10	3.24	3.54	1.677	.177
	N	44	20	10	21	95		
가족간 대화 자주해야	평균	4.05	3.80	4.20	3.80	3.97	.655	.582
	N	44	20	10	21	95		
이미메이션 싫어함	평균	3.02	2.60	2.70	3.19	2.94	1.352	.263
	N	44	20	10	21	95		
스트레스 해소위해 여가 즐겨야	평균	3.95	4.25	3.90	4.00	4.02	.778	.509
	N	44	20	10	21	95		
무리되는 목표 세운다	평균	3.51	3.15	3.60	3.48	3.44	1.193	.317
	N	44	20	10	21	95		
소품도 명품 좋다	평균	2.64	2.45	2.30	2.62	2.56	.305	.822
	N	44	20	10	21	95		
가족관계 위해 내 기분 억제	평균	3.30	3.00	3.60	3.24	3.25	1.123	.344
	N	44	20	10	21	95		
모범적 평가 받으려 노력	평균	3.60	3.32	3.50	3.76	3.57	.935	.427
	N	44	20	10	21	95		
국가보다 개인이익	평균	3.48	3.65	3.40	3.67	3.55	.472	.703
	N	44	20	10	21	95		
건강에 해로운것 하지않음	평균	2.70	2.45	2.40	2.95	2.67	1.340	.266
	N	44	20	10	21	95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	평균	3.50	3.50	4.00	3.43	3.54	.807	.493
	N	44	20	10	21	95		

참고문헌

- 고경순, “가치의식을 중심으로 본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레포츠 용품의 구매행동 분석”, 『광고연구』, 제17호: pp.75-107, 1992.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조사 보고서』, 2003.
- 국민은행, 『월간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각호.
- 김성식, “주택가격 버블가능성 진단”, 『LG주간경제』, 2003.
- 김윤주, “싸이월드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대중매체 및 인터넷 이용 패턴 - LOV(List of Value)를 이용한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예정, 2004.
- 김정훈,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세-구세 조정방안”, 서울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민 토론회 발표자료, 2003. 3.
- 김현아, 『강남지역 주택시장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8.
- 부동산뱅크,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 각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사회계층과 서민의 삶, 2003.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2003.
- 서울특별시, 『연도별 주택현황자료』, 각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울교육통계연보』, 2003.
- 안종범 · 이종훈 · 김세종 · 권태희, 『청년실업대책 성과평가』, 기획예산처 정책용역보고서, 2004.7.
- 우원식 “강남북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노원포럼, 2003.
- 우원식, “강남북 불균형실태에 대한 종합보고”,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2004. 1. 16.

- 윤인숙, “강북 도시 삶의 향상을 위한 제안”,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2004. 1. 16.
- 이세구, “지방재정 균형을 위한 세제개편방향”,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2004. 1. 16
- 이종규, “지역격차와 균형발전”, 도시행정 특강, 2004.
- 이종훈, “기업 주도의 신직업훈련체제 구축방안”, 콜로키움 발표자료,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3.11.
- 장영희·용혜경, “서울시 강남북 지역간 주택시장 불균형 현황분석”, 『주택연구』, 제12권 제1호, 2004.5.
- 최막중, “강북 특성화 재개발”, 『서울도시연구』, 제3권 2호, pp. 107-117, 2002.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3.
- 하승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안”, 서울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민 토론회 발표자료, 2003. 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가구패널조사, 2003.
- 한만중, “강북 교육환경 및 여건의 개선을 위한 모색”, 2003.

시정연 2003-PR-24

서울시 강남북 경제격차 현상분석 정책대안 연구

발행인 백 용 호
발행일 2004년 6월 28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 화 : 02) 2149-1000
팩 스 : 02) 2149-1060
홈페이지 : <http://www.sdi.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